

“쿠바, 기독교 탄압 극심”

지난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획기적인 사건이 카리브해 섬나라인 쿠바의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돌파구를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는 교황 방문의 추억이 잊혀진 듯 하다.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이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탄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교회 건물 파괴, 목사들의 투옥, 종교 지도자들의 사재 몰수 뿐 아니라 기독교 예배에 대한 폭력적인 제한과 같은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이와 관련된 최근 보고서에서 “쿠바 정권은 교회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최소 1,400개 교회 건물을 몰수 및 파괴했다”며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사유 즉 교회가 불법적인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교회 재산의 파괴, 독단적인 구금(拘禁), 그리고

세계기독교연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혀 1천여 교회 몰수 수많은 목사들 투옥

다른 여러 형태의 학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 소유 몰수를 포함해 1,000건 이상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올해 1월과 7월 사이에 공식적으로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몰수되었는데, 그 가운데 100개 교회들은 파괴 협박을 받았다”고 CBN뉴스는 전했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의 탄압은 기독교인들이 집을 떠나거나 교회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자주 보안관에 의해 끌려나갈 정도로 극심했다”고 기술했다.

세계기독교연대는 올해 최소 9개의 사건들에 관한 문서들을 수집하고 기록했는데, 그 안에는 정부 관리들이 교회건물들을 파괴

할 때 목사들이 학대받고 구금되었다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사건 중의 하나는, 지난 3월 20일 마리엔 펠릭스 레오나르트 바로소 목사가 체포된 것이었다.

그는 미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공식 방문을 위해 도착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체포됐다.

세계기독교연대 머빈 토마스 총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쿠바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나 신앙이 침해 받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놀랐다. 그러나 정부 압력에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많은 종교 공동체들의 용기와 인내에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토마스 총재는 미국과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쿠바가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쿠바 목사들, 특히 쿠바 감옥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해진 기자



8월 26일 LA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 교계·사회 지도자들이 북핵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용지에 서명한 후 그 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북핵 폐기 촉구 1천만 명 서명운동”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미국 위한 구국기도회도 개최

북한 핵폐기 촉구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남가주 한인들이 교계를 중심으로 동참한다. 2016년 2월 한국에서 출범한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은 뉴욕, 워싱턴DC 등에서 이미 지부가 발족된 바 있다. 현재까지 이 운동에는 280만 명이 서명했으며 1천만 명 서명이 채워지면 이를 UN에 보내 북핵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 본부에서는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와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기성 목사(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보수단체들의 지도급 인사들도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도 이 운동이 시작됨을 알리는 기자회견에는 한인 교계·사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교계에서는 박희민, 한기형 목사 등 원로를 포함해 민승기(OC

교협 회장), 엄규서(남가주목사회 회장), 강지원(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 윤우경 집사(OC평신도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해 한기흥, 신승훈, 박성규 목사 등 교계 대표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는 김재권 회장(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임태랑 회장(LA평통), 권석대 회장(OC-SD평통) 등이 참석했다.

김재권 회장은 이 서명운동에 관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동참해야 할 운동”이라고 밝힌 뒤 “연말까지 남가주에서 10만 명, 전 미주 187개 한인회를 중심으로 3백만 명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인 마켓과 주요 행사 장소, 길거리 등에서 북핵 폐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인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또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오는 9월 25일(주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연다. 강사는 이종윤 목사이며 탈북자들의 간증 시간이 마련된다.

김준형 기자

“1년만에 2만여 명 감소 예상 통합, 77%가 다음세대”

지난해 비해 1만 6천여 명 줄어...10년간 16만 3천여 명 감소



예상 통합 총회 전체 교인 수 해 2만여 명 감소했다는 통계가 (등록교인 기준)가 지난해에 비해 발표됐다.

이 발표에 따르면, 감소자들 중 77%가 어린이·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지 총회의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총 인원은 40만 7,967명으로 지난해 42만 4,451명보다 1만 6,484명이 줄어들었다.

세 부서 모두가 감소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은 아동부로 전년 대비 7,844명(-4.52%)이 줄었다. 중·고등부는 5,564명(-3.65%), 영·유아·유치부는 3,076명(-3.12%) 각각 감소했다.

[관련기사 8면에 계속]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USA Tel: (949) 329-8222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Email: shelly.moon65@gmail.com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www.Mylivdream.com

대한민국 8.15 광복 71주년 기념 연합예배 결산보고

남가주에 산재한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8.15 광복 71주년 기념의 감동과 환희를 함께 누리며 기념 연합예배를 은혜롭게 마친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연합예배 결산을 보고 드립니다.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 일동

8.15 광복 71주년 기념 연합예배 결산 보고

수입	금액	지출	금액
그레이스 호스피스(최승호장로)	2,500	기념품가방(500개)	2,725
강신권 회장	1,000	공로패와 준비위 넥타이	290
정해진 목사	1,500	저녁식사(이조캐더링)	2,000
명성교회	200	순서지제작 (500권)	1,000
김재울 목사	500	전단지(1000장)	40
강부웅목사	250	포스터(200장)	200
가주장의사	300	행사배너 제작(4개)	180
석정희시인	800	손태극기(500개)	250
김영배 목사	100	문구대	30
진유철 목사	200	행사준비비(청소비, 수고비)	300
유당열목사	100	준비위원회 모임(3차례)	250
서영석 장로	200	쌀 운반비	30
예배헌금	1,292	행사 준비	100
최형호 장로	300	목사장로 부부 합창단	500
목사회	500	한아름선교합창단	300
김관진 목사	200	당일 행사비(접시, 태일 등)	150
여성목사회	100	신문 광고비	3,350
재미게이트볼	100	김재울 목사	600
한미정	100		
백지영 목사	100		
중경회장단 후원금	500		
임원 후원금	1,000		
김소연	200		
가방판매 70개	700	잔액	447
	12,742		12,742

71주년 8.15광복절 행사 준비위원장 안기정 목사

제 4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

- 회장 : 강신권 목사
 수석부회장 : 김재울 목사
 부회장 : 김관진 목사, 권순강 목사, 김영배 목사, 백지영 목사, 손태정 목사, 이상기 목사, 이정현 목사, 이준준 목사, 정삼희 목사, 정종윤 목사, 정우성 목사, 조병국 목사, 조봉상 목사, 최명상 목사, 김선국 목사
- 총무 : 김영구 목사 부총무 : 김용호 목사
 서기 : 이동규 목사 부서기 : 한대명 목사
 회계 : 여호수아 지 목사 부회계 : 김성훈 목사
 감사 : 피터 김, 홍만애
 고문변호사 : 마동환, 김기현

공고 9월 임원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9월 19일(월) 오전 11:00
 •장소 : 교협 사무실

회장 : 강신권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 (323)735-3000 , (Fax) 323-735-3111

“꿈이 현실로...주택구입 도와 드려요”

제15회 KCCD주택구입 박람회 개최



임혜빈 회장(가운데)이 KCCD의 제15회 주택 구입 박람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낮은 소득 수준이나 낮은 크레딧 점수로 인해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한인들을 위해 KCCD(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가 제15회 주택 구입 박람회를 연다. 9월 10일 한인타운 윌셔 길과 베렌도 길에 있는 미국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임혜빈 회장은 “저소득, 낮은 크레딧, 언어 문제로 인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리소스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CCD는 현재까지 주택박람회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이 140만 달러의 다운 페이먼트를 받도록 주선했으며 8천 명 가

량에게 주택 구매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택 구매 혜택에 관한 세미나, 크레딧 점수 교정, 정부나 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리소스,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이윤형 기자

“한인 산불 피해 도움시다”

오픈뱅크 1만달러 기부



오픈뱅크가 LA한인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오픈뱅크 성제환 부장, 로라전 LA한인회장, 오픈뱅크 윤기원 전무, 크리스틴 오 전무.

지난 8월 26일 오픈뱅크(회장 민김)가 블루컷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해 성금 1만 달러를 LA한인회에 기탁했다. 윤기원 전무는 “수익의 10%를 사회환원에 사용하고 있는 오픈뱅크에서는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한인들에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앞으로 오픈뱅크는 커뮤니티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한인들이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오픈뱅크]



극단 이즈키엘의 <청년 예수> 뮤지컬이 9월 17일(토)-10월 16일(금)까지 공연된다. 사진은 리허설의 한 장면.

극단 이즈키엘이 마련한 뮤지컬 <청년 예수>가 공연된다. 이 뮤지컬은 ‘청년예수’는 “한국의 운명이 바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1910년, 그 격동의 시기로 예수님이 공생하시던 이스라엘의 무대를 옮겨 본다”는 가상으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를 위해 희생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들을 22개의 주옥같은 노래들과 한국인 정서에 스며드는 이야기 속에 담은 감동적인 뮤지컬이다. 매진 사례를 이룬 뮤지컬 ‘마루마을’의 연출가, 작가, 작곡가인 전수경씨와 평창올림픽 개최 G-2년

문화행사에 작품을 출품했던 작곡가 최나라씨, 영화, 영상 음악 작곡가 황아름씨, 영화 방자전등 한국에서의 활발한 프로 배우 활동 중 도미, 현재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연출가 겸 배우를 맡고 있는 조창현씨, LA 흠쳐치의 드라마 팀장이었던 제임스 강 전 도사, 12년간 선교무용활동을 하고 있는 티파니 김씨, 미주 온누리 방송국의 아나운서 이유리씨, 25년간 오페라와 찬양 활동을 한 보컬 트레이너 크리스틴 정씨 등 재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뽀뽀 뽀뽀 캐스트들과 스태프들이 2

극단 이즈키엘 뮤지컬 <청년 예수>

9월 17일(토)~10월 16일(금) 이즈키엘 소극장에서

시간 길이의 작품을 진한 감동과 강렬한 복음의 메시지로 짝 채울 것이다.

이번 뮤지컬 <청년예수>의 순수익금은 HSMA(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에 기부된다.

이 단체는 1999년, 미주 유일의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선교 기관을 발족, 창단 이래 2005년 10월, 재활 교육의 전담인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와 2010년 3월, 치료 사역의 기반인 원열 치료 연구소 등의 부속 기관들이 확대 및 증설한 은혜로운 사역 단체이다.

극단 이즈키엘은 전문 기독교 공연예술 단체이다.

- *문의: 213-200-9544
- *이메일: ezekieldrama@gmail.com
- *장소: 이즈키엘 소극장
- *주소: 2515 Beverly Blvd LA, CA 900057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한국어 강좌”

타코마성경장로교회 용명중 목사 강의



웨스턴 리폼드 신학교 재학생.

웨스턴 리폼드 신학교(Western Reformed Seminary)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한다. 강의는 타코마 성경장로교회 용명중 목사가 하게 된다.

용명중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1643년부터 5년간 약 160명의 신학자와 평신도 대표가 모여 작성된 신앙고백서로서 현재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교회들의 기본 교리”라며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목사들과 장로들도 임직 서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한다’고 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 목사는 “강의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더욱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성경에 확신을 갖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

란다”고 전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한국어 강의는 수강생뿐 아니라 청강생도 참석할 수 있다.

용명중 목사는 “웨스턴 리폼드 신학교는 1983에 설립된 후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해 왔으며, 개혁주의적이며 보수주의적 교회들을 위해 목회자와 선교사 및 교회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헌신해 왔다”며 “웨스턴 리폼드 신학교는 영적이고, 지적이며, 능력있고, 헌신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개혁신학을 현재 교회와 세계에 바르게 적용시키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학교에서 인가된 성경적 상담 훈련 센터로 목회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평신도 사역, 성경 상담에 관한 학사와 석사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2016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개강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실버사역의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실버드림대학은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가치

를 발견하며 자기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실버드림대학은 사회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요,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아가도록 교육하는 대학이다. *등록기간: 8월 21일~9월 1일 *수강료: 50불(점심식사 포함) *기간: 9월 1일~12월 8일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2시 30분)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교육관 *등록문의: 213-820-9796

2016년 예수인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온지 어느 덧 1년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오셔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9월 18일
- 시간** 주일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의 마음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했던 대학생 K군의 당회에 대한 불만”

장로 중심의 교회 의사결정 구조, 이대로 좋은가?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고등학교 3학년 K군. 친구의 소개로 다니게 된 A교회는 성도 500명 정도로, K군 또래의 젊은이들이 제법 많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교회는 K군이 잠시나마 입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에 들어가게 된 K군. 교회도 본격적으로 다니게 되면서 청년부 임원까지 맡았다.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흔히 말하는 '헌신'이란 걸 하게 되자 이전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 교회의 주사역이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보다 장년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신의 의견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었다. 여러 시도 끝에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회원이 되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다!”

◆ 평신도, '만인사제' 개념에 따라 교회 참여

현재 장로교를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국내 교단들은 당회를 담임(위임)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혹 부목사들을 당회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의결권은 없고 단순 참관 정도로 그친다. 장로는 교회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직분인데, '장유유서' 때문인지 보통 나이 50은 넘어야 임직이 가능하다. K군이 당회원이 되는 것은 그의 말처럼, 불가능하다.

당회가 장로 중심이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 장로교회들의 오랜 전통으로, 장로교회의 교세가 큰 우리나라에선 다른 많은 교파들과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당회를 구성하고 있다. 당회가 교회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장로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 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은선 박사(안양대 역사신학 교수)는 “종교개혁 이전 중세 가톨릭교회는 사제와 평신도의 신분에 차이를 뒀다. 사제들이 교회를 다스렸고 평신도들은 그에 따르기만 했다”며 “그랬던 것이 종교개혁 이

후 이른바 '만인사제'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평신도, 즉 장로들이 교회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로, 그 본래 의미가 퇴색

교회들은 장로 선출의 성경적 근거를 '디도서 1장 5절'에서 주로 찾고 있다. 해당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시적, 비가시적 요소를 두루 갖춰야 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지나치게 권위주의화 되고 당회의 핵심 세력이 되면서, '평신도들의 교회 참여 폭을 넓힌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나이 제한이 있고, 은연중에 '현금'이 그 선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등 장로들이 교회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장로의 임기가 사실상 없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자칫 당회원으로서는 그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은선 박사에 따르면, 칼빈도 장로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고 지금도 미국에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꾸지만 우리나라는 스코틀랜드의 종신제를 받아들였다. 사실 교단들마다 법으로 일정 기간 후 '재신임 투표'를 못 박고 있으나 대부분 한 번 임직하면 정년을 보장받는다.

◆ 부목사의 참여, 평신도 동역화... 새로운 시도들

이처럼 장로 직분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당회가 그런 장로들로만 구성될 경우 교회의 사역이 다수 교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일부 교회들은 당회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교회 구성원들의 세대별 대표와 부목사 등 장로 이외에도 당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그렇다. 이렇듯 당

회 대신 '운영위원회'나 '청지기회' 등을 쓰며 기존 고정관념을 벗고자 노력한다.

벤엘교회 박태남 목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새로운 당회 개념을 도입해, 부목사들도 장로들과 함께 의사결정에 동참하고 있다. 부목사들이 교회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로들은 2년마다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당회원으로서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런 시도들은 모두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인천의 한 교회 역시 기성 교회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인수 약 4천 명의 이 교회에는 담임목사 외에는 목사 자체가 없다. 나머지는 모두 평신도들로, 이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앞장서 주관하고 있다. 그 만큼 사역이 세분화 돼 있어서 부서의 수만 50여 개에 달한다. “평신도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이 교회 담임목사의 목회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이한 건 이 교회의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의 수가 채 10명이 안 된다는 점이다. 교인수를 고려했을 때 매우 적은 수다. 이 교회 한 집사는 “장로들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뽑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믿음”이라고 했다.

◆ 당회=장로, 과연 이대로 좋은가?

이렇듯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교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래야 '일부의 독점'과 '다수의 무관심' 모두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목회자는 “대형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도 알고 보면 일부가 주요 결정을 독점하고 있다. 또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부흥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한교연 통합논의 7인 추진위”

위원은 양측 5명에 예정 합동과 기감에서 각 1인으로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종승·박무용·이영훈·조일래·채영남·최성규(한기총 전 대표회장)·여성삼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의 통합을 논의할 7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직된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을 비롯해 예정 합동 박무용 총회장, 예정 통합 채영남 총회장, 기성 여성삼 총회장, 예정 대신 이종승 부총회장은 31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이 추진위는 총회장이거나 경총총회장이 위원이 되며, 한교연에서 3인, 한기총에서 2인, 예정 합동과 기감에서 각 1인의 위원을 파송해 오는 9월 말까지 조직될 예정이다.

이후 추진위 내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하는 등 통합에 대한 제반 문제를 다뤄 오는 10월 말까지 합의

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오는 11월 말까지 통합을 완성한다는 게 목표다.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엔 3인 대표(한기총·한교연·한국교회교단장회의)의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들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한기총과 한교연의 대표회장을 비롯해 예정 합동·통합·대신, 기감의 총회장들이 모여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선언문은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 예정 대신 이종승 부총회장, 기성 여성삼 총회장, 기침 유영식 총회장,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박무용·전용재 공동대표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영훈 목사는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총회장으로도 그 이름으로 올렸다.

김진영 기자

“시애틀지구촌교회 창립14주년 예배”

팀 황 전도사 목사 안수 받아

시애틀 지구촌교회(담임 김성수 목사)는 8월 28일, 교회 설립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팀 황 전도사 목사 안수식을 가졌다.

김성수 목사는 “14년 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전했다.

문창선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원로 목사가 “본 받고 싶은 목사”(살전 2: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문 목사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교훈으로 성도를 양육해야 한다”며 “바울을 닮은 열정과 사랑, 헌신과 충성의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팀 황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팀 황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성스러운 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방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말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리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HAS SCIENCE BURIED GOD?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했는가?

FRI, SEP 09 7:00 PM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487-5437 | E-mail: events@e-nca.org

Guest Speaker: Dr. Hugh Ross Organization: Reasons to Believe (reasons.org) Sponsored by NEW COVENANT ACADEMY

“위기의 때, 기도로 전환점 마련해야”

21세기 디아스포라 목회자선교자 영성회 주최...미스바 성령치유 기도 대성회



참회의 미스바 성령치유 기도 대성회가 열렸다.

21세기 디아스포라 목회자선교자 영성회(회장 장영일 목사) 주최 ‘참회의 미스바 성령치유 기도 대성회’가 8월 21일~27일까지 스와니 소제 감리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 목회자선교자 영성회 회장

장영일 목사는 “구약시대의 미스바 집회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미국과 미국교회도 위기의 상황이다. 작은 모임이지만 부흥의 물꼬를 일으켜 보자는 의도로 이번 집회를 열게 됐다”고 소개했다.

첫날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장로 회신학대 학장 박창환 목사는 “세상에는 천동설적 인간과 지동설적 인간이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은 천동설적 인간이며 실제 사실에 입각해 행동하는 것이 지동설적 인간이다.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목사는 “인간의 존재는 우주와 비교하면 정말 미미하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다. 인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경륜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 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틀란타 유수영 기자]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36. 바람

골로새에 찾아든 무더위. 루코스(Lycus) 강가에 더위를 식히려 모인 사람들이 가득하다. 골로새 동편 높은 카드무스(Cadmus)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어디에 더 시원한 바람이 드나 해매는 인파속에서 현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왜 이리 서늘한 바람을 찾고만 있었을까.

예수 믿는게 엄습하는 여름습기처럼 갑갑하게 느껴진지가 오래이다. 바울 덕분에 경험한 구원의 환희 뒤로 나는 심각한 권태에 빠져 있다. 좁은 길이라고 추종자들에게 벌써부터 따를 길의 성격을 규정한 예수를 원망하고 있다. 자기부인과 사랑실천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에게서 명칭하기 이를 데 없이 느껴지는 명령이지 않은가. 불같은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서나 바랄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런 글을 남겼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니. 다름아닌 신이 그 명칭한 짓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잊고 지낸 듯 하다. 나도 신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신에게서 서늘한 바람을 일으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랑은 내리사랑이지만 그래도 아이가 부모를 배려하여 행동하는 걸 보는 아비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새벽을 깨워야겠다. 다시 사랑하고 싶다. 찌는듯한 여름공기는 머지않아 불러가고 이내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다. 내가 그 바람이 되어야겠다.

*그동안 <오네시모의 독백>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자 김병언님의 사정으로 일단 연재를 마감합니다. 다음 호부터는 조동혁 박사의 칼럼이 연재됩니다.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통해 은혜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식지 않는 선교 열정”

상반기 과테말라 단기선교 이어 하반기 아이티 선교 나서



뉴욕실버선교회 23기 교육이 시작돼, 앞으로 10주간 오는 11월 아이티 선교를 준비하게 된다.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8월 23일 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23기 선교훈련 개강예배를 갖고 오는 11월 떠나는 아이티 단기선교 준비에 돌입했다.

뉴욕실버선교회는 은퇴 사역자들의 선교를 지원하고 훈련하기 위한 기관으로 2004년 27명의 지역 목회자들이 지역교회의 고령화를 대비, 창립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총 교육생은 586명이며 단기선교 참가자들은 총 722명에 이른다.

이날 개강예배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의 사회로 권영국 목사 기도, 김인식 목사(6기 동문) 찬양, 김재열 목사 설교, 지영은 사모 헌금

송, 이형근 장로 헌금기도, 이승진 목사(22기 동문) 축사, 김학선 장로 감사소개, 장충현 장로(사무처장) 광고, 최운섭 목사(선교팀장)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김재열 목사는 “백세가 될 때에도”(시71: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제 세계 각 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으며 100세 시대의 도래가 머지않았다”면서 “백세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의미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열 목사는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헌신과 사역은 계속돼야 하며 실버들이 복음



회장 김재열 목사.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끊임없는 기도와 열정을 강조했다.

이번 뉴욕실버선교회 23기 참가자들은 10주간 아이티 생막 지역 선교를 준비, 오는 11월 14일~19일까지 단기선교를 떠난다. 올해 상반기는 5월 3일부터 23명이 과테말라에서 선교사역을 실시했고 당시 의료, 한방, 미용, 안경, 사진, VBS 사역으로 3천 여명의 현지인들을 돌봤다.

뉴욕실버선교회는 현재도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917-963-9356)에게 문의하면 된다. [뉴욕 기독교일보]

“뉴욕교협 선거법 대폭 강화”

금권선거시 당선 후에도 무효처리

대뉴욕지구 뉴욕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 이하 뉴욕교협)가 8월 25일 교협회관에서 42-4차 임실행위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목사회 회장과 부회장은 교협 부회장 선거 출마가 금지되며 회장 및 목사 부회장 등록비가 종전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높아졌다. 장로 부회장의 경우에도 등록비가 2천 달러로 결정됐다. 또 총대는 철저히 사전 등록제로 운영되며 당일 등록은 받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엄격한 선거관리 기준이 적용됐다.

이날 선거관리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올해부터 철저한 선거관리를 통해 금권선거를 근절하고 선거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창섭 목사는 금권선거 증거가 확보될 경우 후보자격 박탈은 물론 선거 후에도 당선

무효됨을 알렸다.

또 사전후보등록제도와 관련, 당일 등록은 금지되며 반드시 총회 2주 전까지 대의원 등록을 마감할 원칙으로 한다고 알렸다. 또 교협 사무국에서도 이름표를 미리 발행해 증경회장에 대한 예의 없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철저한 아이디 검사를 거쳐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인지도 교협차원에서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실행위위원회에서는 교협 이사회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회원 교회가 파송하는 평신도 대표는 자동으로 이사가 되며, 또 종전에는 교협 이사장 1인만 자동총대가 되던 것을 이사장과 부이사장 3인 등 총 4명이 자동총대가 되도록 개정했다. [뉴욕 기독교일보]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노동절 휴일을 맞이해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가 열린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

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시: 9월 5일 오전 8시부터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참가비: 30불(식사 및 간식)

*장소: 가스윌연합교회 *주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문의: 909-268-4279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교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방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6 Fall / 2017 Spring

여수론 기독교학교 학생모집

모집 대상: 9-12학년이 되는 선교사/목회자 자녀 (신실한 크리스찬 자녀 지원 가능)

지원 자격: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신앙고백과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사람,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한 사람, 기숙사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사람, 선교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

전형 방법: 1차 서류 전형 (입학 지원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 학부모 동의서, 기숙사 생활 동의서, Field Work 동의서 각 1부, 추천서,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사진 3매, 서류 전형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차 학생, 학부모 면접 (전화면접 가능, 날짜 및 시간은 개별 연락)

문의처: 315-474-8346, info@jeshurchristianschool.org

교장 지영주 박사
현 시라쿠스 한인교회(PCUSA) 담임목사, 유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KVMC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부의장, 선교사자녀 학교 설립협력기구 기구장, Advisor member of Northeastern Seminary's Advisory Council

학교안내

여수론 기독교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입니다. 믿음과 지식, 앎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목적입니다. 여수론 기독교학교는 경험 중심의 통합적 교육방식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학생들이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방침과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운 말씀과 지식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경험한 말씀과 지식 가운데,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6:33 MORNINGS -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마태복음 6:33)

3P - 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 하나님 나라의 목적 (Kingdom Purpose), 하나님 중심의 사람 (God-centered People)

3S - 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순전한 삶 (Sound Life), 순전한 지식 (Sound Teaching)

세상의 영광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목적입니다.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교육의 근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나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순전한 복음은 건전한 성경관과 신학에 바탕을 둔 신앙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삶은 앎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인성 및 생활 교육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지식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나와 나를 찾는 하나님의 품”

JESHURUN CHRISTIAN SCHOOL

www.jeshurchristianschool.org

info@jeshurchristianschool.org 315-474-8346 1800 E Genesee St. Syracuse, NY 13210

그리스도의 표적을 위한 기적들

마태복음 8:23-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마태복음 8장은 1절부터 이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은 인간, 영은 하나님이라는 신인양성(神人兩性)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 기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한 표적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시고 교동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데, 문둥병자 하나가 그 전날 계속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기병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놓칠새라 저녁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멀찍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 하셨을 때 그 문둥병자도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내려오실 길목을 지키고 앉아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이 기도를 다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길목을 지키고 있던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나와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합니다. 이 함축된 표현의 간절함 속에는 자기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올 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 8:10하)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적기사, 이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의 하나였습니다.

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마 8:6)하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마 8:8)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군대의 과전 대장이고 그 사람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부대 안에 오시는 것을 감당 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겸손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가혹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올 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 8:10하)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적기사, 이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의 하나였습니다.

3.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는 베드로가 사는 벡세다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를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찾아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기 때문에 베드로 집에는 부인하고 아이들만 사는데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 집에 생활비 좀 보내라고 돈 한 톨 푸신 일도 없고, 가장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제자 노릇하느라고 집안 일을 돌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할 수 없이 친정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서 그 가정에서 봉사하시다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동네 소문이 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다니느라고 가정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장모님을 모셔다가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가사를 도와달라고 하고 베드로의 아내가 부딪가게 가서 노동해서 품 팔아서 먹고 살게 되었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12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마 8:15)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앓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깨끗이 나서 열이 싹 내리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물통 들고 우물에 가서 물 길러가니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어찌된 일인냐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되어졌고 날이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으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마 8:16).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다(마 8:17,사 53:4).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적기사의 표적이 베드로가 살던 동네를 복음화시킬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예수님의 이적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시대부터 보내주신다고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며 웅위합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보시고 저 북쪽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를 제자들에게 지시 하십니다. 그 때에 어떤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큰절을 하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했습니다.

서기관이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구약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아주 통달한 연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법사로, 혹은 율법사로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절의 말씀입니다. 물질기대심리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5. 풍랑을 잠재게 하심을 통한 메시아의 증거

본문 23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 갈 채비를 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태풍이 불어 닥치니 파도가 산더미처럼 일어납니다. 그런데 배에 탄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고 뱃사람, 어부들이었지만 풍랑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이 배에 타셨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다보니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흔들고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즉시 바람과 바다는 아주 잔잔해 졌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자기백성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쓰실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쓰실 계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Need color ?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Office &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364e / C284e / C224e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Mobile Support USB Print	USB Print
-------------------------------------	-------------------------------------	-------------------------------------	--	--	-----------------------------	-----------




미국 PCA 교단에 소속한 본 **갈보리 장로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에서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중·고등부(Youth Group)
영어 목회부(English Ministry)

- 자격조건**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재학생.
체류에 이상 없으신 분.
영어로 능통하신 분 (한국어 가능하신 분 우대)
사명과 열정을 갖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실 분.
- 제출서류**
이력서 1부(사진첨부)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1부
- 연락처**
교육위원장(정석표 장로): T(443)243~0061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조 병래)
www.calvaryus.org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LA 한인타운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위치 : 6가와 샷토 코너(새연약학교)
시설 : 본당 380+석, 파킹 46대, 교실 및 식당
연락처 : T(213)487-5437
담당자 : Mr. Joseph 구
이메일 : info@e-nca.org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I)



김인수 교수
전 민주장로회신학대 총장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일은 물론 복음 전파였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개혁하고 구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길이기도 했다.

1930년대에 고당 조만식(曹晩植) 장로는 “회개는 가치 있는 사회변화의 유일한 기초”라 확언한 바 있다. 그는 복음의 선포는 민족 부흥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지역에 한 교회운동을 지원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 운동이 민족의 사회적 삶을 기독교화하는 과제에 원동력이 됨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에게 복음 선포는 개인 구원 뿐 아니라 민족의 사회적 구원의 틀이었다. 따라서 개인구원이 사회구원의 밑받침이 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후진되고 뒤떨어진 한국 사회 개화에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결과가 크게 나타났다. 오랫동안 중국 문물을 답습해 오던 조선은 서구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쇠국 정책 일변도로 나갔다. 그러나 밀려오는 외세에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 문물과 접할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유교사상의 인습에 젖은 한국인들이 구각(舊殼)을 벗어 버린다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변화하는 세대에서 언제까지나 옛 모습을 지니고 살 수만은 없었다. 이런 옛 인습을 벗어 버리게 하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 선도해 나갔다. 이에 대해 「매일신보」는 “예수교가 나라 문명 부강과 독립 자유의 근본이 되는 줄을 깨달았다.”고 보도했다. 내용을 옮겨 보자.

“지금 세계 각국에 문명 개화한 나라들은 다 구교(舊敎)나 야소교를 믿는 나라인즉 이걸 보거든 그리스도교가 문명 개화 하는 데는 긴요한 것이라. 그리스도교 하는 백성은 언제든지 옳고 공변되고 의리 있는 일을 하거든 하나님이 보아 주시는 것을 믿는 연고요.....우리가 오늘날 대한국을 대하여 축사하노니.....정치가 더 잘되고 국가가 태평하기를 받으며 대한 신민들이 무론 빈부귀천하고 점점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 자기 목숨보다 국가 명예와 진보하는 것을 더 중히 녀여 대한이 더 문명하며 법률과 기강이 밝게 서로 협잡하고 나라 법률을 익히고 국민의게 해로운 일을 못하도

송해 현지 실정을 조사케 했다. 그 후 1901년에 뉴욕의 국제위원회가 질레트(Philip Gillette)를 한국 YMCA 설립 준비를 위해 파송했다. 질레트는 서울에서 배재학당과 한영서원 학생들과 더불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Y 창립을 위해 노력했다. 1903년 10월, 정동 유니온클럽에서 선교사 게일(S. Gale)이 초안한 헌장을 낭독하고, 통과된 헌장에 28인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황성기독교청년회’(YMCA)가 공식 조직됐다. 게일이 첫 회장으로, 윤치호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후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총무에 취임했다.

YMCA는 국가의 개혁과 개화에 앞장섰던 독립협회가 수구당의 압박으로 해체된 후 사실상 이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만들어진 단체다. Y에서는 고관들 자체들이 사교와 친목,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빈한한 가정 소년들이 주, 야간으로 실시되는 기술학교에서 기술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산업부(産業部)에서 목공, 페인팅, 사진기술, 금속, 인쇄, 직조 등의 직업훈련을 받았다. Y에서는 체육교육과 여러 가지 운동 즉, 야구, 농구, 배구, 정구, 탁구, 정발(덴마크) 체조, 인도봉(印度棒:곤봉) 등 현대 스포츠를 소개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동경기대회를 실시해, 국민보건과 운동 경기력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 따라서 YM은 청소년들의 좋은 사교와 훈련장이 될 수 있었으며, 사회계몽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1907년 미국 기독교인 실업가와 나메이커(Z.Wanamaker)가 4만 달러의 거금을 희사했고, 현흥양(玄興洋)이 9백여 평 땅을 기증해 주어진 Y에 있는 종로 2가에 1천여 평에 현대식 3층 건물을 서양식으로 지어 신축했다. 이 건물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고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이라 장안의 명물이 됐다. 1910년부터는 지방에도 지회를 설립해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선교와 봉사, 교육에 치중했다.

Y는 기관지 「청년」(青年)을 1914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고, 1925년 9월 한국 Y는 세계 Y 연맹에 가입해 세계와 교류하면서 한국 청년들의 활동범위를 세계로 넓혀 주었다. 1927년부터는 농촌운동도 전개해 도시에서 뿐 아니라 농촌지역 계몽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작은 꿈을 잘 키우자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작은 것 속에 담겨 있다. 작은 것 속에 담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놀라운 잠재력을 담아 두셨다. 작은 씨앗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담겨 있다. 작은 씨앗 속에 큰 나무가 담겨 있고, 거대한 숲이 담겨 있다. 하나님 한 분외에는 어느 누구도 작은 씨앗의 미래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잉태될 때, 우리의 모습은 작은 씨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작은 씨 안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신다. 꿈꾸는 사람은 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똑같은 씨앗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의 씨앗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씨앗 속에 담긴 엄청난 미래를 본다. 하나님은 작은 사과 씨앗을 보실 때, 그 씨앗이 성장해서 사과나무가 되고, 그 사과나무가 매년 풍성한 사과를 선물해 줄 것을 보신다. 우리는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 우리가 상상하며 보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은 꿈의 능력을 아신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꿈은 미래지향적이다. 필자가 꿈을 좋아하는 까닭은 꿈을 꿀 때 과거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늘 과거 속에 머물러서

를 키우자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누어 성취하는 것이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누어 성취하면 어느 순간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큰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을 성취하기 원하는 사람은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된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 적절한 균형이 날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전에 보디발의 집의 가정총무로 세우셨다. 애굽의 국무총리의 일과 보디발의 집의 가정총무의 일은 크기는 달랐지만 일의 성격은 같았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전에 감옥에서 간수장을 도와 재판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기셨다. 거기서 그는 술맡은 관원장을 만나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었다. 요셉이 성취한 큰 꿈은 작은 꿈이 모아져서 된 것이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는 작은 풀꽃을 관찰하는 중에 쓴 시다. 필자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작은 풀꽃을 깊이 묵상한 후에 쓴 짧은 시가 그를 국민시인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오늘도 꿈을 선택하고 꿈을 꾸자.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꿈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길 바란다.



푸른투어 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여행설계사
데비드 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가정여행객
가정여행객


“2016 최고의 가족여행”

요세미티 캠핑 2박3일

“요세미티레이크 RV 리조트에서 BBQ 파티(스테이크/삼겹살), 따뜻한 커피 그리고 별보기”

백유진가이드 + 캠핑전문 셰프와 함께하는 요세미티 캠핑

글레이셔 포인트




4인실 기준

- [특전1] 요세미티 최고의 글레이셔 포인트
- [특전2] 요세미티 폭포 트래킹 산책 / 타이오가 패스
- [특전3] 전문 셰프가 스테이크를 준비합니다
- [특전4] 캠핑트레일러/캐빈숙박(텐트가능)

\$399

3일 ▶출발: 9월3일 (토)



‘기차, 온천 그리고 와이너리 낭만과 여유를 즐기세요’

샌디에고 기차여행

샌디에고(기차) / 샌디에고 올드타운 / 라호어(쇼핑) / 샌디에고내항(크루즈) / 줄리안/엘림 핫 스포링(온천) / 캘리포니아 랜치(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하루 온종일 세도나에서 제대로 느끼고 즐기세요’

라스베가스 세도나

바스토우 / 라스베가스 / 윌리엄스 슬라이드라크 주립공원 / 오크크리 캐년 물놀이 / 세도나, 볼텍스 / 몬테주마헬 / 팜스프링스

▶출발: 9월3일 (토)

\$299 \$249

남안 레인보우브릿지 & 호스슈밴드 **3일 \$345**

캐넌/파웰호수(크루즈)/엔젤로프 캐년/호스슈밴드 \$150상당 경비행기 포함 ▶출발: 9월3일 (토)

중안 빅서 / 피나클스 국립공원 **3일 \$345**

산타바바라/빅서/키멜씨티/레드우드(7차)/피나클스 국립공원파소볼레스(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후시 요세미티 & 타이오가 패스 **3일 \$345**


위티니 포탈/바숨/타이오가 패스/요세미티/프레즈노/모로베이(7차) ▶출발: 9월3일 (토)

신비 엘로우스톤 **4일 \$799**

세계 간헐천의 70% 1만 피트가 넘는 산봉우리 45개 ▶출발: 9월2일 (금)

세계최초/최고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를 한시 앞에 두는 엘로우스톤 국립공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고의 여행을 약속 드립니다. **[이종환 가이드]**





벨라지오
추가요금 없이

벨라지오 호텔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호텔로 음악에 맞추어 화려하게 솟아나는 분수쇼와 라스베가스 최고의 쇼인 수중 서커스 쇼 “o” 쇼 공연장을 갖춘 라스베가스 최고의 호텔입니다. 지상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환상의 벨라지오 리조트로 추가요금 없이 모십니다.

- [추천]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2박3일 ▶매주 화/토 **\$299**
- [BEST]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3박4일 ▶매주 토 **\$389**
- [실속] 4대 캐년 3박4일 ▶매주 화 **\$389**
-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 화/토 **\$599**
- [특별]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6박7일 ▶매주 화/토 **\$689**

9월 / 10월 푸른투어 실속특선

-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3박4일 ▶9/6 [출발확정] **\$389**
- 미서부 실속 (그랜드/라스베가스 등) 5박6일 ▶9/7, 21, 10/5, 12, 19 [출발확정] **\$599**
- 3대 캐년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 3박4일 ▶9/13 [출발확정] **\$389**
- 5대 캐년 (4대캐년 + 모뉴먼트 밸리) 4박5일 ▶9/26 [출발확정] **\$599**

푸른투어 LA 오픈기념 이벤트!

fitbit, 자동차, 여행용품

★응모기간: 10월14일까지 추첨일: 1차8월 15일 2차9월 15일 3차 10월 15일 (한국항공관광공 8월 15일 1차, 9월 15일 1차 추첨이며 그 외 모든상품 10월 15일에 추첨합니다)

★응모처: 푸른투어 사무실 내방 (사무실: 11181 고덕로 11181번길 11181호)

추첨자: 대한항공 LA지점장(우측) *1차 당첨자 최은순님

미동부 캐나다 절정 단풍여행
비경의 화이트 마운틴과 **신(深)** 단풍의 퀘벡 5박6일

① 한인여행사 최초 뉴햄프셔주의 화이트마운틴 - <단풍 곤돌라> <카마스커스 단풍로드>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퀘벡과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
③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오조블케이즘> 단풍 힐링하이킹

▶출발확정 10/5, 8 **\$949** (항공/숙박/입장료 등 포함)

그랜드캐년 9대 캐년+세도나 7일

예술과 자연의 만남(세도나), 거대한 협곡(그랜드캐년), 빛의 미술(호텔룸 캐년) 내버려 두지 마세요(모뉴먼트밸리), 바람이 닦아낸 신비의 (이치스캐년), 모든 캐년을 모아놓은 듯한 (캐년랜드), 붉은 침묵들의 향연 (브라이스 캐년), 웅장함의 극치 (자이언캐년),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도시(라스베가스)

▶출발: 9/29, 10/27 **\$849**

Imagine Your Korea World
단풍절정 한국일주 10일

전주/해남/순창/한려수도/남해/외도/경주/영덕/실상 등 단풍일주 ▶10/20 **\$2,560** (항공포함)

서부본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동 동행

멕시코 성지순례 4박5일 **\$1,450**
[신부님 동행 / 매일미사] 과달루페 성지 ▶9/28~10/2

라스베가스/세도나/피닉스 4일 **\$399**
오크크리캐년 예술인의마을 스코츠데일 아리조나미션 사투어로 국립공원 ▶9/26

미국남부 대륙횡단 14박 15일 **\$2,499**
제9차 ▶10/20 제10차 ▶11/2 /항공포함/
관광객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 스모키 마운틴 단풍관광 포함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 4! 5!

- 3대 캐년 4일 \$389
- 3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 4대 캐년 (벨라지오 숙박) 4일 \$389
-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 토 **3대 캐년 + 앤젤로프 캐년**
- 5대 캐년 5일 \$599
- 5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8일 \$899
▶매주 월 **4대 캐년 + 모뉴먼트 밸리**

실속

- 그랜드 캐년/라스 베가스 (벨라지오 숙박) 3일 \$299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월, 목, 금, 토 **토요일만 벨라지오**
- 미서부 실속 여행 ▶매주 화, 토 (벨라지오 숙박) 6일 \$599

HOLLYWOOD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버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량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동부본부 “한번의 선택이 자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명문대 탐방 5박 6일 ▶화,토 **\$1,090**
브라운 / 예일 / 하버드 / MIT / 프린스턴 / 유엔 / 존스홉킨스 / 콜롬비아

명문대 탐방 7박 8일 ▶수 **\$1,160**
브라운 / 예일 / 하버드 / MIT / 프린스턴 / 유엔 / 콜롬비아 (나이아가라)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엔)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4명 이상 출발

실속 미동부 5일 ▶매주 수/토 **\$749** (항공포함)
(뉴욕/워싱턴 DC/아리조나)

미동부/천섬 6일 ▶매주 수/토 **\$849** (항공포함)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미동부/보스턴 7일 ▶매주 수/토 **\$999** (항공포함)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미동부/캐나다 8일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미동부/캐나다 8일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브즈지, 퀘벡)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매주 수/토 **\$1,24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올랜드 특별상품 디즈니, 유니버설 등 ▶매주 화
에버글레이드 에어모터 특별출발 9/3

올랜드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올랜드/마이애미 4일 **\$1,399** 5일 **\$1,499**

유럽 여행설계사 데이트강과 함께하는

감성과 낭만의 **스페인일주 8일**

HOT! 3대 이색특식 / 스페인 8대 내부관광지 포함

1. 스페인 3대 이색특식 배야아, 몽골리안BBQ, 신도불이 허몽
2. 8대 내부관광지
3. 세계적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4. 유럽 3대 성당 - 세비야 대성당 관광
5. 알함브라 궁전 4) 메스카타 대성당(내부)
6. 산프토메오회 6) 톨레도 대성당
7. 가우디 최후의 걸작 - 파르미야 성가족 성당
8) 동화 속의 세계 - 가우디 구엘 공원

▶특별출발: 9/19 **\$2,299** (항공포함)

캐나다본부 Wow~ 천섬크루즈 포함

리얼 캐나다를 보대 **신상품 런칭기념**

실속 캐나다 동부 5일 ▶매주 목 **\$1,399 \$1,099**

토론토, 천섬, 몬트리올, 오타와, 나이아가라, 올드퀘벡(아퍼/로워타운), 총독관저, 캐나다 연방 의회, 와이너리(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까지) 방문

한국본부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리무진+강남소재 호텔숙박

No! No! No! 25인승 대형 디럭스리무진 최고급 호텔(특급), 지역별미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부본부 4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월/금 **\$1,499**
평창올림픽관광 3일 ▶수 **\$1,549**

플러시 퍼펙트 검진 \$470 건강검진 \$350
신체측정, 인공, 구강, 심전도, 명인검, 흉부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갑상선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골드 퍼펙트 검진 \$520 건강검진 \$400
플러시 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9/24 **\$3,099** +항공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입장료포함 전 일일 특식제공 -해롤드피사/황이규/호이리케 스페인/포르투갈 11일 ▶9/12, 9/26 **\$3,199**
리스본/세비아/마드리드/바르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9/12, 9/23, 10/3, 10/17 **\$3,099**
이스트볼/피도카/아르미안탈아/파르갈레/에페소/데살로/카고르도/아테네

이태리 일주 7일 ▶9/10, 9/24 **\$2,799**
밀라노/베네치아/피렌체/로마/폼페이

뿌라비다 코스타리카 활화산 용암 온천물로 즐기는 일일컬리 온천욕

백야스산/리베리아/포코요원 관광 포함

4일 **\$850** +항공 5일 **\$825** +항공 6일 **\$1,090** +항공

하와이 캄피올라 호텔 4일 **\$799**
애쉬튼 와이키키 4일 **\$929**
하와이 허너 3일 **\$1,349**

호텔 2인1실 편입 서비스 포함
호텔룸 2인1실 편입 서비스 포함
9일 이상 일주 관광

멕시코 하트트지바 로스카보스 숙박
신혼여행 / 골프패키지 All inclusive 서비스

로스카보스 칸쿤 4일 **\$659** +항공 5일 **\$800** +항공 6일 **\$1,000** +항공
4일 **\$800** +항공 5일 **\$950** +항공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교회 자립을 위한 교역자 컨퍼런스'가 29일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열렸다.



(맨 오른쪽에서 순서대로) 이주태 대표회장과 정근모 총재, 김진옥 목사 등이 한 선교사의 비석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미자립 교회 어려움 함께 극복하자”

예장 합동 교회자립지원위...4천곳 넘는 엮고 힘든 교회 함께 돕자

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교회자립지원위원회(위원장 김선규 목사, 이하 자립위)가 29일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교회 자립을 위한 교역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1부 예배와 2부 사례발표 및 격려행사로 진행됐다.

먼저 예배는 김동관 목사(회록서기)의 사회로 양성수 장로(부회계)의 기도, 김선규 목사(부총회장)의 설교, 박무용 목사(총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코이노니아'(사도행전 2:43-47)를 제목으로 설교한 김선규 목사는 "교회가 세상이 외면한 약자를 감당할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주님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할 것"이라며 "주님의 뜻은 교회가 약자의 짐을 함께 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교회를 사이에서도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농어촌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교회들도 있다"면서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지

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 힘을 준다면 교회는 더욱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2부 사례발표 및 격려행사는 박무용 총회장의 격려사, 오정현 목사(자립위 실행위원장)의 환영사, 자립 모범사례 발표, 문화행사 및 격려선물 증정, 이견영 목사(중부권역 부위원장)의 폐회기도로 진행됐다.

박무용 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교단이 크다하지만 교단 내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4천 곳이 넘는 걸로 안다"며 "우리가 함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한다. 총회는 자립위가 독립적 구조를 갖고 보다 효과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자"고 전했다.

오정현 목사는 환영사에서 "사랑의교회를 지을 때 이것이 영적 공공재가 되면 좋겠다는 게 목표 중 하나였다"며 "그렇게 공적 섬김의 기능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미자립교회

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아닌,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자립 모범사례 발표 순서에 나선 진주대학교교회 박철우 목사는 "대학에 진학한 기독교 청년 10명 중 2명만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조사가 있다. 그만큼 대학의 영적 상황이 좋지 않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응한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지난 2011년, 경상대 앞에서 10명의 대학생들과 대학교회를 개척했다"고 했다.

박 목사는 "당시 캠퍼스 수요일 배가 교회 사역의 중심이었다. 개척 후 하나 둘 대학생들이 늘기 시작해 지금은 약 120명의 대학생들과 예배를 드린다"며 "앞으로 각 과마다 기도회를 만들어 대학의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주 지역 모든 대학에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다.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한 이루실 줄 믿는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생명 바친 선교사 따라 헌신하는 평신도”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공식 일정 전 양화진 찾아 추모

1,200만 기독교인의 연합단체'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대표회장 이주태 장로, 이하 한평총)의 '양화진 추모식'이 한국기독교 130년, 이제 또 다른 시작과 함께'를 주제로 30일 서울 양화진선교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이주태 장로가 최근 한평총 대표회장에 취임하고 공식 일정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다해 사역을 감당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본받아 한평총의 정신인 '회개' '성결' '헌신'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마련됐다.

이달 초 창립한 한평총은 "한국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및 북한선교를 위해 평신도 단체들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평신도 운동을 전개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지체들'(빌

2:5)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주태 장로는 "한국교회는 짧은 세월 동안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고, 그로 인해 대사회적인 기독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한평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주태 대표회장을 비롯해 최근 한평총 총재직을 수락한 정근모 장로(전 과거처 장관), 김진옥 목사(한국기독교언론재단 상임대표회장),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한편 양화진선교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거행한 한평총은 이후 묘역을 돌며 기도했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군동성에 불허한 균형법 합헌 판결”

바른군인권연구소 등...균형법 92조의6 합헌 판결관련 포럼

군대 내 동성애 확산 우려로 강력한 시민운동과 여론이 일어났던 '균형법 92조 6'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합헌'으로 결정된 가운데, 8월 29일 낮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는 '바른성문화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이 함께 '균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고영일 변호사(에드보킷 대표)는 현재의 합헌 판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심판대상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문제이나 본질은 동성애를 군대 내에서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법리

적, 종교적, 윤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의 위헌주장을 합헌의견이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전한 윤리관, 성도덕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영일 변호사 외에도 임슬기 법무관,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이수진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한효관 대표(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등이 발표했다.

한편 균형법 92조 6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으로, 지난 2016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5:4로 합헌 판결이 이뤄졌다. 이는 3번째이다. 박용국 기자

이대웅 기자

“1년만에 2만여 명 감소 예상 통합, 77%가 다음세대”

지난해 비해 1만 6천여 명 줄어...10년간 16만 3천여 명 감소

[1면으로부터 계속] 영·유아·유치부는 2014년에만 2천 명 늘어난 반면, 2008년 이후 계속 감소 중이다.

아동부도 10년 전인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중·고등부는 2009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예상 통합 총회 교회 학교 전체 학생 수는 10년 전에 비해 16만 3,35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부 학생 감소가 64%를 차지했다.

2006년 27만 3,824명이던 아동부 학생 수는 2015년 말 현재 16만 5,785명에 불과해, 10년만에 10만 8,039명이 감소했다.

특히 교단 산하 8,843곳의 교회 중 어린이나 청소년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무려 3,017곳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영·유아·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절반에 가까운 4,229곳(48%)이었다.

이 외에 전체 교회 중 중·고등부가 없는 곳은 43%(3,814곳), 아

동부가 없는 곳은 42%(3,714곳)였다.

전체 교회 수는 전년 대비 112곳이 늘어난 8,843곳이지만, 1명이라도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는 지난해 통계보다 132곳이 줄어든 5,826곳이었다.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교육전도사 수도 뒤따라 줄어들고 있다. 2010년 4,813명이던 교육전도사 수는 2015년 말 현재 4,142명으로 671명이 감소했다.

이대웅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BPPE 인가, ABHE 정회원 인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점입,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중 앙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u.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학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성도는 세상과 그리스도 있는 다리”

복음전파에 대한 그렉로리·캔터베리저스틴헬비·폴리 비치 견해



그렉 로리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전할 때, 그들과 소통의 끈을 잘라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하비스트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 그렉 로리(사진)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교인은 세상과 주님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지 다리를 태워버리는 이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로리 목사는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때, 그 대상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지 결코 논쟁에서 이기려고 함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보라”고 조언했다.

캔터베리 저스틴 헬비 대주교는 복음 전파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이 물어오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통해 헬비 대주교는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하는 측면에서 당신이 말하기 전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전할 때 그것이 일방적인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그들이 요청해 오지 않는 이상, 당신의 믿음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헬비 대주교의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북미 성공회 폴리 비치 대주교는 지난 5월 “헬비 주교가 전도에 대해 한 주장은 반만 맞는 말이다”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 좋은 소식(복음)을 듣겠는가?”라고 헬비 대주교의 말을 논박했다.

이어 “당신이 암을 치료할 치료법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겠는가? 모든 이들이 알기 바라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소피아 기자

“기독교 성장 이끈 오순절주의”

변영복음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

지난 6월초 이탈리아 몬테살바노에서 TV 인터뷰를 진행 중이던 존 파이퍼 목사는 ‘오늘날 세계에서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최근 파이퍼 목사의 블로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Desiring of God) 사이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공개됐다.

당시 파이퍼 목사는 “그건 매우 크다. 오순절주의와 복음주의의 각성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들은 복음을 사랑하고 거둢남을 사랑하는 자들,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전도와 세계 선교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현재 서양 세계는 약화되고 있다. 최소한 지난 세기를 돌아볼 때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 않은가? 한때 복음주의의 중심이었던 유럽에서 기독교는 매우 작아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세기가 시작할 때는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5%였는데 지금은 50%에 가깝게 늘었다. 남미와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의 속성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주로 오순절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오순절주의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그는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성령이 오늘날 기적을 행하고 있다

고 믿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기독교 성장의 선봉에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순절주의와 변영복음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많은 곳에서 오순절주의와 변영복음, 변영설교가 섞여 있다. 변영복음은 ‘여러분의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은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농작물은 잘 자랄 것이다. 아내는 절대 유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돼지는 8마리 새끼를 낳을 것이고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이라는 말로 기독교를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틀렸다. 이러한 종류의 설교는 교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오순절주의가 변영설교와 연합해 나가고 있는 수준이 어떠한 지를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존 파이퍼 목사
©페이스북

“기독교인들이 성(性) 문제 말할 때”

‘편협한 자’라는 편견 감수해야



러셀 무어 위원장
©크리스천포스트

“기독교인들이 성 문화에 관여할 때는, 이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편협한 인간’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은 최근 대학개혁 교회 케빈 드영 목사, 리더머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와 함께 기독교인이 성적 인 문제, 특별히 동성애를 다룰 때 그것을 사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드영 목사는 “우리의 문화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면서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내가 자랄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성문제에 있어서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무어 위원장은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협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이러한 이슈들에 말할 수 있는지 와서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그

때마다 ‘오늘날 미국 문화에서는 성적 인 자유를 대부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편협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편협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울 수는 없다”면서 “기독교인들이 성윤리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을 갖고 이를 바꾸려 할 때, 20분의 논쟁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문화가 대학 캠퍼스에서 더욱 더 나타나는 반면, 성윤리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역사적인 관점은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안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켈러 목사는 “성과 관련된 모든 폴이해의 근원은 자유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성윤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아온 켈러 목사는 “자유가 ‘성’에 대한 어떠한 저항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회적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혁신교회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외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방인세대를 깨우며, 이방인기장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증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연재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정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5-6412 / gmc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용 담임목사</p> <p>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365-8880 / F.(213)365-8802</p>	<p>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말-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말-토) 오전 7: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213)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913-4499 / F.(323)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박영천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8: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 토 오전 9:30-12:30 한아침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p> <p>서건오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323)939-7323 / www.kwpc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천안침례교회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안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8 W. 6th St., LA, CA 90020 T.(213)383-2600, (213)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213)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침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신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502-9999 / www.smkc.us</p>	<p>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213)389-0691 / F.(213)389-0694</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부인 모임 오전 11:00</p> <p>김영구 담임목사</p> <p>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310)404-6219</p>	<p>1부예배 오전 8:3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p>
<p>1부예배 오전 09:30 김중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말-금)</p> <p>김중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 E.isaacdew@hotmail.com</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749-4500 / F.(213)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신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매(Maturing), 뒷산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말-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02-6709</p>
<p>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p> <p>김범수 치과</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p>	<p>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용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p> <p>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출감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전 1:15
3부예배 오후 2:00 종교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예배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종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천이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예배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블리즐 Valley Chapel LA 예배터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금요일성경 집회 - 저녁 7:45 수요(영성)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새벽예배: 월-금 5:30am
19514 Pinalo St., Northridge, CA 91326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818)8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오른쪽)와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 ©크리스천포스트 via RIA

“전도 금지법 위반 러시아 개신교인 유죄”

신고없이 집에서 종교활동 이유...약 70만원 벌금형

포럼18뉴스는 “러시아의 ‘새로운 전도 금지법’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 가운데 미국인과 가나인은 과중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러시아인이고, 마리투레 지역의 신세대이자 오순절 공동체 리더인 알렉산드라 야카모프는 8월 29일(현지시간)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하레 크리슈나교단(힌두교의 Krishna신을 믿는 종파)의 추종자 바딤 시비리예프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죄선고로 끝이 났다.

오스왈드는 항소를 위해 머물렀다. 포럼18뉴스는 “신념의 공유 금지 개정조항”이 2016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됐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성경봉독, 찬송, 설교로 구성된 예배를 드린 혐의로 오스왈드가 받은 유죄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적인 종교활동은 선교사의 활동으로서 편향되게 여겨지고, 16조항에 따라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라고 전했다.

새로운 법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에 의해 통과됐다. 운동가들은 “이 법은 테러에 대한 엄중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적인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가혹한 조치”라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법안에 서명했고 시비리예프는 7월 28일 재판을 받았다.

가나인이자 모스크바 트베르에 소재한 그리스도의대사 교회 에베네제르 투아 대표는 5만 루블(약 86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세례를 베푼 장소인 요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60km 떨어진 오를 주에서는 미국인 침례교 목사인 도날드 오세왈드가 4만 루블(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포럼18뉴스가 보도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투아 대표는 트베르 시에 있는 요양원 수영장 및 회의실에서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관련 구비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집회를 포함한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신앙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게시하고 선교사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는 집에서 종교적인 예배를 가질 뿐 아니라 근처 마을에 예배에 관한 광고를 냈다는 것이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소송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서술로 입증한 바 있는 오세왈드는 결국 자택에서 체포됐다.

한편 익명의 ‘전문가’는 “법원은 그리스도의대사 교회를, 고도의 선교사 활동이자 ‘인터넷을 통해 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지닌 새로운 청교도들의 종교 운동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스왈드 변호사는 오스왈드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오스왈드의 가족은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강혜진 기자

“교회 내 완전 평등이 목표”

동성결혼 영국성공회 사제...공개서한 발표예정



앤드류 포슈케인 사제(오른쪽)와 동성 배우자. ©영 크리스천투데이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최근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사제가 소속된 영국성공회의 한 교회가 반(反)동성결혼 규율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공개 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서한에는 동성결혼한 12명의 사제 커플들의 서명도 담겼다.

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국성공회 지도자들은 “동성에 사제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왔다. 포슈케인 사제의 공개 서한은 영국성공회가 지난 2년 동안 내부적으로 진행해 온 ‘공유된 대화’의 다음 차원으로 작성됐다. 성공회 내 여러 단체들은 교구를 초월하여 동성결혼과 교회 내의 뿌리깊은 분열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거듭 마련했다.

지난해 동성 배우자 스테판과 결혼하고 교회 내 최고의결기구인 주교의회에 진보 진영의 게이 옹호 후보로 나서 당선된 바 있는 앤드류 포슈케인 사제가 공개 서한을 마무리하고 있다.

저스틴 윌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내년에도 다른 주교회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올해 초 캔터베리에서 열린 회의 즉,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향한 미국성공회에 대해 “조치”를 취한 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공개 서한에는 궁극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완전한 평등’을 향한 교회의 방향 전환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슈케인 사제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게이와 레즈비언들과 그들의 결혼 추세에 응하여 교회도 전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갖고 나아오는 주교들을 지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교회는 (그 추세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더 이상 게이와 레즈비언 공동체를 향해 지금의 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 동성애에 대한 대부분 교회의 태도가 물이해적이고 잔인하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주교들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명한 교회는 (그 추세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더 이상 게이와 레즈비언 공동체를 향해 지금의 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 동성애에 대한 대부분 교회의 태도가 물이해적이고 잔인하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주교들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동성간) 법적 혼인 관계를 결혼으로 전환한 더 많은 사제들이 있을 것

강혜진 기자



'타겟'이 성적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자, 수많은 고객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 사진은 AFA의 타겟 보이콧 영상 캡처이다. ©AFA.org

“타겟의 성(性) 정체성 따른 화장실 정책”

논란 일고 고객 방문 줄어들자...1인 1실 화장실 늘리기로

보수주의 단체인 미국가족협회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1인 1실 화장실을 늘리겠다고 한 타겟의 최근 발표가 그들의 트랜스젠더 정책을 바꾼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며 현재 진행 중인 타겟 불매운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는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AFA)가 “타겟이 최근 발표에서 미국 내 지점들에 새로운 남녀공용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트랜스젠더 화장실 논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 발표가 타겟에 대한 보이콧을 끝내는데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가족협회가 이 정책을 이유로 타겟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에는 140만 명이 이상이 서명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내 1800여개 가운데 아직 1인 1실 화장실이 없는 300개 지점에 2,000만 달러를 들여 내년 3월까지 1인 1실 화장실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미국가족협회 팀 와일드먼(Tim Wildmon) 회장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여자들과 소녀들을 위협에 밀어넣는 것이다”며 그가 타겟 CEO 브라이언 코넬(Brian Cornell)에게 지난 22일 보낸 편지에는 “올해 타겟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로부터 여성이 위협당한 사건의 횡수도 적었다고 보도했다.

미국가족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팀 와일드먼은 이 편지에 “우리의 요구는 1인 1실 화장실 외에 타겟이 성별 화장실 또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타겟이 현재의 남녀 공용 화장실과 탈의실 정책을 바꿀 때까지 타겟 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타겟의 고객들에게는 “실제 타겟의 트랜스젠더 정책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인 가족들이 타겟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도 경고했다.

덧붙여 팀 와일드먼 회장은 불매운동 참여 이외에 타겟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서 개인적인 댓글로 이 회사의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타겟의 케티 보일란(Katie Boylan) 대변인은 “타겟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뿐이다”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 지점에서 편안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고객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타겟의 아이다호의 한 매장에서 한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에서 수영복을 입는 10대 소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노르웨이 루터교회, 4일 만에 2만 6천여 명 감소”

최근 노르웨이의 국교인 루터교회가 교회 정보를 체계화할 목적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 아니면 ‘탈퇴’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분명히 해달라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9일에 성도들 중 15,053명이 교회에서 떠나기로 결정했으며, 22일에는 10,854명의 성도들이 교회 멤버십 탈퇴를 선택했다.

갑작스럽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 교회협의회장 크리스틴 굴레익스루드 라움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교회가 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더 이상 교회에 성도로 있고 싶지 않은 이들은 번거로움 없이 떠

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협의회 이사 쟈스 페터 온센(Jens-Petter Johnsen)은 “새로운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성도들에게 쉽게 공식적인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루터교회에 따르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교회 기록을 체계화하는 것은 더욱 직접적으로 교회 성도들과 대화할 수 있게 기여하며, 교회 디지털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온센 협회회사는 “노르웨이 교회는 노르웨이 인구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380만 명의 성도가 있다. 누구나 세례를 받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교회 성도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소피아 기자

“아프칸에서 美대학 총기 사건 발생”

수도 카불 소재 미국 대학내에서...12명 희생당해

지난 24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Kabul)에 소재한 미국 대학에서 두 명의 무장 괴한에 의해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 학생 7명을 포함해 12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두 명의 무장 괴한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그 당시 큰 폭발음이 미국 대학 캠퍼스 내에 울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폭발 이후 총소리가 쏟아졌다. 무장 용의자들은 외국인 직원과 학생들이 일하는 건물로 들어가 공격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용의자가 들어간 건물을 에워싸 무장 용의자들과 대치했다.

카불 경찰서장인 압둘 라만은 “7명의 학생, 3명의 경찰, 2명의 경비원이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다. 대학과 관련한 사건은 이달만 해도 두 번째다”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로이터스 통신을 통해 “산발적 총소리가 새벽까지 났다. 두 명의 무장 용의자들이 사살

으로 총격전은 끝이 났다. 현재 범죄 수사팀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불 경찰 범죄수사팀장 프레이둔 오바이디(Fraidoun Obaidi)는 “경찰들이 700~750명 가량의 학생들을 대학에서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교실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숨거나 탈출하기 위해 2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탈출하다 발목을 다친 한 학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2층에서 뛰어내렸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다친 학생들도 있다”며 “우리가 교실에 있을 때 큰 폭발음과 총소리를 들었다. 총소리가 매우 가까웠다. 일부 학생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다른 학생들은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다.

대학이나 대학 직원이 대상으로 한 이번 총기사건은 이달 만해도 두 번째 사건이다. 아무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습격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장소피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들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글) 토 9:30am-10:00pm
대학원부E-college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집아이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집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lfb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C.(714)308-7308/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찬양회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새벽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행사바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예프타스콜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생년부 오후 2:00

얼바인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o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재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만민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모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령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

샘 파기의 명소 브엘세바(Beersheba)



브엘세바 이스라엘 왕국시대 유적지.



고대 유적지 입구에 있는 돌로 만든 번제단.

◆네게브 광야

이스라엘 땅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남부지역의 광야는 네게브 광야라 부르며 준 사막지역으로 일 년 강우량이 200mm 이하 지역으로 사람이 주거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을 때 이 척박한 땅을 주거지로 정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래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물을 좇아다니는 목축업으로 직업을 전환하였던 것은 장차 이스라엘에 정착없이 떠도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최초의 원시선교사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시작하여 100년간 광야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가 평생 한 일 중에 위대한 가지는 광야에서 우물을 파면서 지낸 것이다. 우물 파는 일은 생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물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면 되겠지만 물이 많은 지역은 이미 바알 신을 비롯한 지역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7족속과 산지족속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훈련은 광야가 적합하였던 것이다. 결국 3대 족장의 주거지는 변함없이 광야에서 이루어졌고 이후에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견디면 출애굽 하는 일에 중요한 배경이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목이 마르다. 현대

아브라함, 이삭의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 이스라엘 땅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남부지역의 광야

적 관계 수로로 인하여 남부지역의 중요한 흥해의 항구도시 예일랏과 네게브 중앙의 미쯔베 라몬이나 디모나, 네게브 수도라 부르는 브엘세바까지 물이 공급되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다. 브엘세바가 속한 남부지역은 동으로 아라바 계곡과 접하고 남으로는 이집트와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블레셋 평야와 만나고 북으로는 유대 산악으로 이르는 경계가 놓여있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도시로는 아라드, 브엘세바, 가데스 바네야 등이 있다. 또한 고대 세계에는 유목민에 의해 간간히 관계무역이 이루어져 주후 1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동안 고대 도시들이 네게브 광야 곳곳에 서게 된다. 주요 도시로는 맘쉬트, 니산나, 쉬시트, 아브앗 등이 있다.

◆네브엘세바에 정착하는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람(Abram)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당도하였고, 세겜과 벧엘을 거쳐 브엘세바에 거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 "맹세의 우물",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세바는 네게브 광야 중심도시로서 연간 강

우량이 200mm 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한계 강수량 지역이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 곳도 사라가 사라가 된 곳도, 이곳이며 큰 아들 이스마엘(창16:15)과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곳도 브엘세바(창 21장)이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들판에 나가서 방성대곡하던 곳도 이 지경이다, 지금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성대곡하던 지역에 베드윈들의 집단 촌락이 들어서 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울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곳도 이곳이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은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사는 동안 만난 것은 기근과 속임수와 전쟁 등이었으며 그의 생애가운데 100년을 지내면서 고통과 슬픔, 한편으로는 이삭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다.

아굽은 말년에 자식들을 이끌고 이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요셉을 향하여 애굽으로 출발하였다.(창46장)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좋은 지역에 속하는 지중해 해변 평야지대나 갈릴리지역 에 거

주하지 않고 유대산악지역과 네게브 광야지역까지 내려와 평생 우물만 파다간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의미 없는 삶이 아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그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고, 약속의 자손들을 가나안 족속의 우상숭배에 물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약속의 자손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파는 우물파기만 하였던 것이다. 그의 생애에 커다란 업적은 없지만 누구나 아브라함을 바라 볼 때마다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보낸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브엘세바 들녘 로뎀 나무 밑에서 은혜를 체험하였다.(왕상19:1-8) 결국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설 명이 되어진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슴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믿음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요4:13) 최초의 선교사 또는 원시 선교사라 부르는 아브라함, 그를 통해 오늘 위로를 받는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혹은 생활이라도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파

다 보면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창대해 질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브엘세바의 현재와 옛날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 아굽 3대 족장이 살았던 브엘세바는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도시로, "네게브의 주도"로 불리기도 한다. 2012년 현재 인구는 196,900명이 고, 면적은117.5km으로 이스라엘에서 7번째로 큰 도시다. 20년 전에는 11만 8천 명이였다. 벤구리온 대학 외 많은 대학이 있다.

브엘세바는 네게브 지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면서 사막의 오아시스가 된 것이다.

지금 그곳에 가면 베드윈들에 의해 열린다고 하는 양시장 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볼 수 있다. 북쪽으로 4km쯤 가면 고대도시 브엘세바의 유적지가 있고, 고대에 사용했다는 돌 제단이 남아있다.

다행인 것은 유대인들만 사는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수 살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주변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베드윈들이 살고 있다.

<계속>



서병림 목사, 이스라엘선교회



브엘세바 고대 유적지 입구.



이삭 우물.



아브라함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 입구.

100개 \$320 2017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저희 탑미디어는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커스텀 달력도 제작해 드립니다.

심방 및 선물용 액자 (병원, 개업, 가정 심방용 말씀액자) \$30

말씀이 기록된 심방용, 선물용 캔버스 16x16:\$30 커스텀제작도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18x24, 20x30등 다양함)

TOPMEDIAUSA MEDIA TOTAL SOLUTION

주님미디어 닷컴 junimmedia.com

TOPMEDIAUSA.COM E-mail: topmedia153@gmail.com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각종 배너 36x120 \$50

각종 임식배, 감사배 \$50

전도용 시디 / 앨범 제작

각종 선도용품

강단 배경 디자인 및 제작

VBS 및 각종 행사 선물용 티셔츠 폴칼라티셔츠인쇄 \$6.5

주보/ 헌금봉투 및 각종 인쇄물

주보1000장+헌금봉투1000장 \$300!!! (디자인 무료!!!)

교회로고이름+주소+전화번호 차량용스티커 2개 \$50 !!!

각종 사인 전문 실내외 차량용사인 \$15 \$160

전도물티슈

볼펜

각종 미그립 / 보존 물병

수건 100개\$400

전도용시디

책갈피

•한수희 칼럼(13)-자기 이해의 힘<1>

나는 실제로 누구인가?

어린 시절 잡지책을 뒤적이다 자신의 성격 유형이나 연애 타입을 알아보는 문항들에 Y(예스) 혹은 N(노)로 답하며 화살표를 따라 마지막 답이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쫓아가 보곤 했던 일은 필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엉터리라며 괜히 기분 나빠 하던 기억에 혼자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세미나를 하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참가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른다고 누군가 이야기 하면, 나 자신에 대해 나 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발견해서 따지고 들고 싶은 게 우리들이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을 이해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아 탐구의 작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내 삶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인지, 그 영건 실태를 풀고 싶은 사람들...삶의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 어디를 가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혹은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자기 이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이해는 속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들, 아니 그것을 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며 선물이다.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조하리의 창'(JoHari's Window)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조하리 창은 심리학자 조셉과 해리가 만든 개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정보 교류를 창문 비유를 통해 설명한 자아인식 이론이다.

조하리 창을 잘 이해하면 타자(공동체) 속에서의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자아 인식에 도움이 된다.

조하리 원도우는 4개의 창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창은 나와 상대가 모두 알고 있는 열린 영역이다. 나의 이름과 외모를 포함해서 성격과 인품에 이르기 까지 나에 대해 나와 타인이 공히 알고 있는 영역이다. 한 마디로 가장 투명한 영역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해 진실하고 투명하게 열려 있으며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사람일 경우 이 영역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창은 나는 모르지만 상대는 알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맹인 영역이라 부른다. 어찌 보면 참 부끄럽고 두렵기도 한 영역이다. 남들은 다 보는 나의 모습을 나만 모르고 있는 영역이니 말이다.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일수록 이 영역이 클 수밖에 없다. 소위 공주병 왕자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역에 속할 수 있다. 보통 이 영역이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관계적 스타일이나 성향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

려움을 겪는다. 세 번째 창은 나는 알지만 상대방이 모르게 숨기는 영역이다. 그래서 비밀영역이라 부른다. 자신만 아는 은밀한 죄와 악한 습성이 이곳에 속한다. 또한 수치심과 열등감을 갖게 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 영역에 속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귀한 정체성을 확신 할 때... 사랑과 수용이 있는 성숙한 교제를 경험할 때 회복될 수 있는 영역이다.

네 번째 창은 나도 상대방도 모르는 영역이다. 그래서 미지의 영역이라 부른다. 무의식의 자아가 속한 영역이다. 깊은 내면의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 영역이며 일상 생활에 부딪히는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이 곳에서 기인하기 쉽다. 나도 상대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알아나감으로 넓히기에 힘 써야 하는 영역이다.

나는 네 가지 중에 어느 창이 넓은가? 바라기는 부끄럽게 감추고 살아가는 비밀 영역도, 남들만 보는 맹인 영역도 작았으면... 더욱 바라기는 나에 대해 무지한 미지의 영역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드러났으면... 그래서 투명하

게 드러나는 '나'가 정말 '나'였으면...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4가지 창이 섞여있다.

중요한 것은 줄어들어야 할 영역과 넓어져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넓혀야 하는 열린 영역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기 이해의 의미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자기 발견이란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자원과 내면의 비참함을 더불어 발견하는 것이다. 자기 이해란 정보의 나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 이상의 작업이다. 오히려 경험에 대한 왜곡된 기억과 직면하는 작업이며 그 왜곡된 기억이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기이해는 치유의 힘을 갖는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곧 내 관심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길 원한다. 자기 이해가 필요한 지점은 바로 그 바램 가운데 출발한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자기 탐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장렬 칼럼

삭개오의 복음(2)

그렇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삭개오라는 한 영혼, 종교-사회적으로 가망 없어 보이는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실로 감미롭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가망 없어 보이던 영혼에게 기쁨을 선물한다 (눅 19:1-6). 하지만, 삭개오 이야기는 거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 아셨다. 그는 이미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악명의 폐해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대놓고 삭개오와 교제하신다. 니고데모(요한복음 3:1-2 참조)처럼 밤늦게 찾아가 몰래 대화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의 집으로 당당히 행진한다. 비난의 독화살을 맞을 줄 알면서도 못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당당히 걸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또 한 번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다.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그 일을 감행한다. 동족의 배신자, 세리와 교제한다. 삭개오와 친구가 된다면 그와

동급 죄인으로 취급 받게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셨건만 굳이 고집스럽게 그의 집까지 들어가신 것이다. 어쩌면 열심당원들이 이 기회에 예수님을 제거 대상 목록에 추가했을 수도 있다. 민족 배신자의 절친이니 말이다.

누가복음 19:2는 삭개오가 받았던 비난을 "세리장"과 "부자"라는 단어를 통해 암시한다. 과도한 세금징수로 동족을 착취하고 토색하여 삭개오는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19:8참조). 앞서 세리장은 아마 군중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생각할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나갈 용기, 그러니까 혈투중 양던 그 여인이 가졌던 용기를 내지 못 했으리라.

이 부자 세리에게도 이름은 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정결함과 무죄함을 뜻하는 이름, "삭개오"는 이 놈의 세리에게는 걸맞지 않다. 그는 탈북자들의 정착금을 노려 사기행각을 벌이는 인간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팔아 거부가 된 부류들만큼 종교-사회적으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그렇기에 이웃들은 "죄인"이란 말로 세리장의 이름을 대신한다.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눅 19:7[개역개정])



이장렬 교수
미드웨스턴침신대학원 신약학

못사람이 보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군, 거기 묵으려고 말이야." (눅 19:7 [사역])

문제는 더는 삭개오만 비난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다. 동네 사람들의 불평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그 수군거림은 험사리 끝나지 않는다. "예수, 괜찮은 랍비인 줄 알았는데, 밥 얻어 먹을 곳이 없나 봐. 삭개오 같은 인간 집에 들어가다니..."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가 봐. 삭개오가 어떤 죄인인 줄도 모르나? 그가 선지자였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 집에 들어 가고 있는 줄 알았을 텐데..." 함께 어울려선 안 될, 낙인 찍힌 존재와의 교제는 축방 받

던 랍비 예수를 실격 대상으로 만든다. 세리와 우정은 선지자 예수를 가짜 선지자로 만든다. 삭개오에 대한 비난이 빛의 속도로 예수님에게로 전이된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복된 대속의 그림자가 드리워있다! 삭개오의 비난을 기꺼이 나누어지신 예수님이 바로 얼마 후 삭개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이다. 십자가의 주님은 본인의 이력서(resume)를 관리하려 삭개오 같은 부류와는 상종치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사형틀에 오른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눅 5:30; 7:34; 15:1-2 참조). 그들의 친구로서 기꺼이 오명을 뒤집어 쓰셨다. 그렇게 그들의 멍에를 함께 지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사부터 졸골 살아 오셨던,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삶의 궁극적, 결정적 표현이었다.

혹시 7절 한 절에 있는 짧은 언급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삭개오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등장한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

렇기에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말미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지심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더욱이 신약 복음서들은 "긴 서론부를 가진 수난 기사들"이란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의 수난이 누가복음의 중심적 사건이라면,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가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거의 직전에 나오는 사건이라면, 이 세리장 이야기를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 읽는 것이 아마도 필연적이라. 그렇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들려주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서곡이다. 겉으로는 화려함을 추구하나 내면은 논바닥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같은 영적 가뭄 시대의 갈증을 반영하는 탓일까?

우리 주변에 "은혜"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다. 그러나 삭개오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은혜는 극도로 구체적인, 선명하게 인격화된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이다(고후13:14 참조). 십자가에서 삭개오 같이 악랄한 죄인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그 분 말이다. 그 분이 바로 삭개오의 복음이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조성환 | 규장 | 256쪽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조연자들이 많이 있다. 친구들, 상담가, 멘토 등 묻기만 한다면 여러 종류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조연자들이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이 책은 어디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고 무엇이 최종선택이며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향한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임마누엘 일기

짐 와일더 | 토기장이 | 2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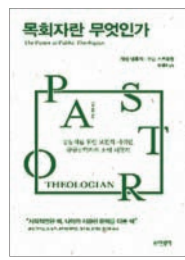
임마누엘 생활방식은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임마누엘 일기 쓰기를 통해 임마누엘 생활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도구로 '임마누엘 일기'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대화를 하실 것을 기대하며 쓰는 것이다.



목회자란 무엇인가

케빈 밴후저외 | 포이에마 | 3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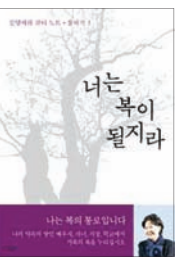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지식인, 공공신학자의 소명 되찾기'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목회자의 지도자상이 성서가 아닌 현대 문화에서 가져온 경영자, 심리치료사 등의 이미지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한다. 이 책은 목회자가 공공신학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 조언과 대안을 제시한다. 또 일상생활을 신학적으로 사고하도록 돕는다.



너는 복이 될지라

김양재 | 두란노 | 368쪽

"복 받는 비결은 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너는 복이 되어라"이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이다. 복이 되려면 희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맡겨드리기 희생하면 온 가족이 편안하듯 복이 되는 삶은 희생의 삶이다. 그런 점에서 복은 "거룩"과 같은 뜻이다. 나 한 사람이 희생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터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당신은 구원의 순례길에 올랐는가”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한국 교회 상황에 맞게 강해한 메시지

“〈천로역정〉은 기독교 고전입니다. 고전은 옛것이지만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책은 일순위로 번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인생은 구원이라는 비상구를 찾아 헤매는 여정이다. 눈앞에 펼쳐진 신기루에 속지 말아야 한다. 구원은 더디고 힘들어도 좁은 문, 곧은길로 갈 때 얻을 수 있는 값진 보물이다. 당신은 그 구원의 순례길에 올랐는가?

지난 300여 년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다름 아닌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다.

찰스 스펀전, 제임스 패커, 길선주 등 수많은 영적 거장들에게 영혼의 등불이 되어 준 〈천로역정〉은 시대를 거슬러 오늘날까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준다.

지구촌교회 원로목사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설교가 이동원 목사에게도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일평생 옆에 두고 목상하며 간직해 온 소중한 책이었다.

이 책은 2016년 9월, '천로역정 순례길' 개관(필그림 하우스)을 앞두고, 1년 여간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온 말씀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설교들과는 달



이동원 목사와 함께하는 천로역정 이동원 두란노 | 328쪽

리 문학 작품을 통해 신앙생활의 진면모를 살펴봄으로써 복음을 접하는 새로운 접근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걸어간 그 순례길을 이동원 목사만의 깊은 영성과 복음적 메시지를 들으며 함께 걸을 때, 성도로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순례자로서의 보람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저자 이동원 목사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복음 설교가다. 지성의(知情意)의 균형을 이룬 아름다우면서도 감동적이고 인격적인 설교는 성도들의 가슴을 파고 든다.

이 책은 이동원 목사가 성경을 옆에 두고 일생을 목상해 온 존 번

연의 역작 〈천로역정〉을 오늘날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것으로, 저자는 그 안에 담긴 영적 심비를 이야기꾼답게 흡인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지구촌교회를 창립한 이동원 목사는 2010년 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로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걷고 있다.

지구촌 미니스트리 네트워크(GMN) 대표,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KOSTA 국제 이사장, 한국말말선교단 이사장 등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복음 사역의 선두 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인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북뉴스 서평]

‘방콕’ 해서 ‘성경의 땅’ 여행하기

이스라엘 전문가가 쓴 ‘성경의 땅’ 소개서

‘여행’이란 무엇인가? 지식인의 소양에서 여행은 필수적 사안이다. 자기 탐구 분야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행은 지식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성경 독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각각의 상황마다 이미지를 올리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땅’에 그리움을 갖는다. 극동에서 중동까지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쉽게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좋은 저자를 만나면 직접 그곳에 가지 않아도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책이다. 성경 독자에게 꼭 이스라엘 여행을 추천한다. 조건은 여행 전에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 사전 지식으로 이강근의 <성경의 땅...>은 필독서와 지침도서이다.

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강근 목사로부터 너무나 다양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하게 중고서점에서 구입했던 <에레쯔 이스라엘(1995년)>이 그 이강근 목사의 작품이라는 것을 훨씬 후에야 알았다. 서평작가로서 서평을 위해 <성경의 땅...>을 탐독할 때 기쁨을 가졌고, 이런 작품은 ‘정수(精髓, 여행 가이드의 에센스)’라는 생각을 했다. 1995년 무명의 이스라엘 탐구자였던 이강근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이스라엘 연구자 위치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 ‘성경의 땅’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강근’일 것이다. 이강근은 공종파와 기독교 방송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소개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이고 목사이다. 페이스북에서 꾸준히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 제시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 그의 가슴에 붙어 있는 태극기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런 이강근이 <성경의 땅, 이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만나다
이강근
생명이말씀사 | 448쪽

스라엘을 만나다)를 집필했다. 그 자체로 대박이다. 독자는 ‘이강근’이란 이름만 보고 <성경의 땅...>을 구입해도 무방하다. 이강근은 다음에 더 증보된 동일한 저술을 남길 수도 있다. 그 때는 변모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익도 있을 것이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만나다>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베들레헬, 유대광야, 사해 지역, 네게브 지역, 헤브론, 쉘렐라, 지중해 연안, 중앙 산악지역,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지역을 순환하는 코스로 구성했다. 그래서 독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에서 조망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저자가 수 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토대가 됐기에 가능한 것이다. 독자에게 여행 최고의 완속미인 공간 감각까지 선물하려는 뜻있는 의도가 있다. 한번 독자로 이스라엘 지형에 대한 공간 감각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직접 그 땅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성경의 땅>을 다독, 그리고 정독한다면 이스라엘 지형에 대한 입체적 감각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을 받을지 기대가 된다.

<성경의 땅...>은 101가지의 이스라엘 지역, 성경 배경 요소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성경의 땅은 헤

롯, 로마 시대 이후 기독교(비잔틴 제국), 이슬람, 십자군 전쟁, 이슬람, 독립전쟁 등의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 <성경의 땅>에서는 그런 역사의 흔적과 과정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성경의 배경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여행객에게 들어오는 가장 오래된 정보는 헤롯이나 로마 비잔틴 시대의 유물이다. 준비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여행한다면 비잔틴 유적만 가득히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의 땅>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시대의 층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 배경’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헤롯 이전 구약성경 등의 성경적 배경까지 충분히 숙지하고 생생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 입체적 조망과 과거와 현재까지 조망할 수 있는 ‘지식 폭발’을 경험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것은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책은 많은 사진을 게재하면 할수록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45쪽이 적은 분량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다음 작품에서는 ‘다양한 여행 코스’를 제시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항공편만 구입하면, 책만 들고 직접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코스를 소개해 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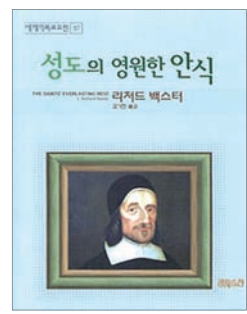
책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만나다>는 한국 회에 너무나 유익한 자산이자 선물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서가에 반드시 꽂혀 있어야 할 책이다. 그리고 틈틈이 읽고 또 읽고 자기 지식으로 이스라엘 땅을 정리해 보자. ‘방콕’해서 ‘열광’으로 정리한 목록과 <성경의 땅>을 들고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가 보자.

강도현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스리뷰]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준비는 어떠해야 할까



성도의 영원한 안식
리처드 맥스터
크리스천다이제스트 | 384쪽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지대한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천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수록,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다.

이 책과 더불어 제임스 더람의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책도 성도의 죽음에 관한 명작이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위대한 성경 신학 교수였던 게할더스 보스 교수는, 영원을 지적에 두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칼빈이나 루터나 로이드존스나 순교자들을 보면, 그들은 생애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음을 볼 수 있다. 로이드존스 목사는 자신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말 것을 가족들에게 요청했다.

어서 주교는 맥스터의 저술 능력을 높이 사고 집필을 끈질기게 재촉했고, 토마스 맨턴 목사는 맥스터가 이 시대의 누구보다 사도의 저술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이 책은 맥스터 목사의 설교 작품 가운데도 수위에 드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에 대해 베이츠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맥스터는 삶과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고뇌하면서 이 책을 썼지만, 이 책에는 그의 거룩하고 활기찬 마음에 대한 표시가 담겨 있다. 그는 우리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위의 성소를 열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과 즐거움을 발견하되, 어쩌나 강렬하고 생생한 빛으로 발견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반짝이는 허영이 그에 비할 때 사라지게 하고, 나이 든 사람이 어린이의 장난감과 물건을 무시하듯 진실한 신자가 그 허영을 무시하게 할 정도다.”

그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칸막이를 없애고, 지옥의 영원한 불

을 아주 생생하게 만들고, 그처럼 두려운 색채로 정죄 받은 자들의 고통스런 수난을 표현하므로, 제대로 그것을 살피면 아무리 육적이고 비참한 사람의 고삐 풀린 듯 방탕한 욕구라도 억제되고 통제될 것이다.”

맥스터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돌리틀 목사다. 1657년에 죽은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 존 제인웨이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회개하게 된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성도의 안식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성도의 안식의 탁월함, 이 안식을 받을 사람들의 성품과 그것을 잃는 자들의 불행, 이 천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

맥스터는 하나님과 원하는 만큼 가까이 다가갈 때가 멀지 않았으니, 기운을 내라고 한다. 참된 신앙의 선진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점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특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에 압도됐는데, 그래서 그들의 신학에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이 담겨져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안식’이다. 이 책을 가까이 두고 매일 묵상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와 평안 속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언제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김재운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불통’을 넘어 ‘소통’하는 기독교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손호현
동연 | 536쪽

손호현 교수의 저서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진 병폐인 ‘불통’을 넘어 ‘소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학적 시도가 담겨있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Religion is the substance of culture, culture is the form of religion)라고 갈파한 신학자 폴 틸리히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 현대문화와 과학기술 문명의 기저에는 기독교 문화

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독교와 세상의 원활한 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기독교는 비판받고 있고 한국교회의 ‘계도화’에 대한 성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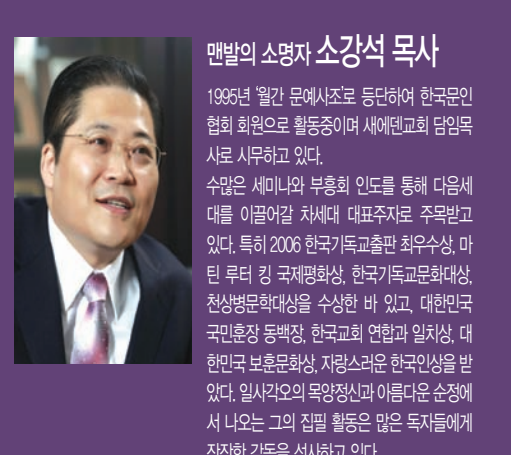
손 교수는 이 책에서 14개의 인문학 주제들(해석학, 문헌학, 역사학, 철학, 자연과학, 의학, 생태학, 페미니즘, 예수의 죽음, 경제학, 종교적 테러리즘, 음식문화, 고통의 문제)을 통해 기독교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안나가? 가나안!

— 소강석 지음 —

신앙의 왜곡과 이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허려 교회를 안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대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긴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6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차상, 대한민국 보존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사탄의 세력지배자 264면 / 10,000원
- 레위기에서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 거룩의 재벌권 239면 / 11,000원
-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Five South Bay churches worked together to donate new backpacks to students in Lawndale and those under the care of Olive Crest. (Photo: South Bay Mission Church)

South Bay Churches Collaborate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BY RACHAEL LEE

Churches in the South Bay area in Southern California have come together yet again this summer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South Bay Mission Church, Shalom Church, Faith Presbyterian Church, Crosslife (the English ministry of Gardena Presbyterian Church), and The Branch (the English ministry of Podowon Baptist Church) have combined ef-

forts to donate 110 new backpacks to the Lawndale School District, and 90 new backpacks to Olive Crest, a non-profit that takes care of foster care children, which were delivered in early August.

This is the second summer these churches have partnered together for this effort. Pastors of these five churches have also collaborated on multiple occasions for other efforts, including going on an overseas mission trip together.

New Study Explores Why Religious 'Nones' Departed from Religion

Adults identifying themselves as "religious nones" have increased over the last few decades, according to Pew Research Center, and a recent Pew survey explored why they chose to move away from religion.

About 78 percent of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said that they grew up in a religious environment, but departed from the religion.

Pew received hundreds of different responses when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elaborate in their own words why they left their religious groups. Though the responses were diverse, Pew said,

the research center was able to categorize some responses under common threads.

Some 36 percent said they were disenchanted with the religion, and about 7 percent said they were not interested in or did not need religion. Around 7 percent also said that their views evolved. Only 1 percent said they experienced a crisis of faith.

Many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parted ways with religion because of its organized ways and hierarchy. About one in five Americans held this view.

Others also said that they saw religion becoming too much like a business. Some also mentioned sexual abuse by clergy as one of the reasons for their leaving their childhood religion.

Around 18 percent of Americans said they were unsure about their religion. Some 7 percent said they were unaffiliated but religious, and stated views such as "I believe in God, but in my own way." About 3 percent included those who said they were spiritual but not religious, and wanted to seek "enlightenment."

About 10 percent of the "religious nones" said they grew up in religiously-affiliated homes, but now said they were inactive in their religion. Such people were seen to retain some religious beliefs, but were not participating in their religion. Some of them said they did not go to church, and others said they had other things to do and were too busy to attend services at their respective houses of worship.

Many of those who were disenchanted with their religion said certain reasons such as evolution made them apprehensive of their

religion. Others said "too many Christians were doing un-Christian things," "religion is the opiate of the people," or "rational thought makes religion go out of the window," etc.

People who disliked organized religion said that they saw "religious groups as more divisive than uniting," while some were put off by "clergy sex abuse scandals."

The inactive believers "stopped going to church when [they] went to college and never picked it back up. [They were] never super religious," Pew stated.

'Giving Voice to Things that Need to Be Heard'

Hip Hop Artist Aims to Go Beyond Making Music

BY RACHAEL LEE

The first time Jason Chu heard a song that resonated with his Asian American experience was during his junior year of high school, when he heard 'Got Rice?' by AZN Pride. The song struck a chord in Chu, who grew up being homeschooled and then being surrounded by primarily White and African American peers in Delaware. Chu eventually ended up performing the song for his high school talent show. It was his first performance in front of an audience.

"There was something about being in front of everybody and saying something that resonated with me," Chu recalled, saying that in retrospect, he realized that this experience was a launching pad to his current career.

That element of telling relatable stories is particularly prominent in his upcoming album. Chu is set to release his fifth album, 'Arrivals,' on Friday night with a live performance at the Pico Union Project in Los Angeles, the first of the many 'Arrivals Story Nights' he plans to host across the country. At the Story Nights, Chu and other musicians -- including Joe Kye, with whom Chu collaborated to create 'Arrivals' -- will not only perform some of the songs in the 'Arrivals' album, but also listen to stories from the audience and perform them on stage through spontaneous poems and lyrics.

The idea behind the 'Story Nights' aligns with the way Chu perceives his career, as something more than just music. By sharing stories, he hopes listeners who resonate with

them would find healing, and also be empowered to share their own journeys.

"I hate celebrity -- it says that I'm better," Chu said. "But I want to let people know that we are you -- we're telling you. It's about your story. Anytime you see me, you should be seeing you."

This philosophy of storytelling stems from Chu's Christian faith and his background in ministry, he says. Chu had been involved in a college ministry at Yale University (which is also his alma mater) and served as a full-time staff at an international church in Beijing. Chu also studied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thout faith, I wouldn't have cared about people the way I do, and ministry is all about serving people," Chu said. "And the music that I love, the music that I had been writing -- it was therapeutic and a release for me, but it couldn't just be for me. It had to be for others too."

Chu's songs explore some heavy topics. For instance, a song called 'Peter' from his first album 'Much Love' tells the story of a devoted church-goer who also has questions about his attraction towards other males, and unravels some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that he experiences. In 'Red Lines' from the album 'Millennials,' Chu opens up about his own struggle with self-harm and depression. Chu also talks of the first time he felt sexual attraction after looking at what is presumed to be a Victoria's Secret poster of women in lingerie, and his internal battles with lust and porn in the song 'no angels,' also from the album 'Millennials.'



(Photo: Jason Chu)

"It's a complete lie that silence, or covering up, makes you stronger," Chu said. "The work of sanctification and salvation that gets carried out in our live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precisely this stuff -- no longer fearing the darkness. The light in us has overcome the darkness; hiding the darkness just gives it more strength. And it's just like saying that the light is not enough to overcome it."

This is also the reason that Chu said he hopes these topics would be more widely discussed in the church. While Chu was involved in ministry, he said he felt that the church often thinks of outreach as events or sprints; but he says simply having these types of conversations make the faith more relevant to the everyday lives of congregants and seekers.

"You don't have to be a musician to be creative and to talk about abuse or depression," Chu said. "You can get creative with your liturgy, with your Thursday night youth group. But in order to be creative, you have to be honest and fearless."

"There's art in discernment and

discipleship, too. Are we creative in how we approach these issues, or are we safe? The opposite of creativity is safety, because if we just stay safe, nothing gets created," he added.

Though Chu himself no longer serves in ministry in a staff capacity, he says his aim to serve others is the same, whether within the church or outside of it, and doing even more than music. Chu has partnered with several groups, including with government agencies such as Alameda County and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WHIAAPI) to speak out about issues such as mental health and bullying, and with mainstream media outlets like NBC Asian America to produce a series on Asian American musicians and how their religion affects their music, and vice versa.

Chu said these various roles give him different titles, such as "hip hop and spoken word artist, as well as a host and cultural commentator."

"Internally though, I think of myself as a speaker. It's all about giving voice to the things that need to be heard, always."

Over 100,000 Gather to Hear the Gospel at SoCal Harvest

Evangelist Greg Laurie's SoCal Harvest 2016 event was attended by 105,000 people who gathered at the Angels' Stadium in Anaheim, CA this weekend.

The mass event drew an audience of 161,230 people both in person and online, according to the Harvest ministry website. The event featured webcasts for all three nights.

During this weekend alone, 11,994 people came to Jesus, organizers say.

Since the annual event started in 1990, it saw a combined attendance of over 5.6 million, where some 476,000 made confessions of faith.

The Harvest gathering was designed for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featured Christian singers like Phil Wickham, TobyMac, Skillet, For King & Country, KB (Kevin Burgess), and Hollyn (Holly Miller).

On each of the nights, Laurie spoke for 35 minutes on the issues of the meaning of life, life after death, and other questions.

"Everyone needs Jesus -- from the highest of highs to the lowest of lows, every man, woman, boy and girl," said Laurie.

"You can come to Him and be forgiven of your sin," Laurie continued. "You're either going to say yes or no, but are you willing to bet all of eternity on it?"

"I'm just the delivery boy, I'm just here to get the Good News out. But it's up to you to decide what to do with it," Laurie said. "Jesus loves you and he said follow me -- that's the choice. You can walk out of Angels' Stadium with all of your sin in the rear-view mirror."

SoCal Harvest began as a one-time event in 1990 but grew to become large-scale events across the country.

Just six months ago, Laurie also held a Harvest event in Dallas, which was attended by about 350,000 people, according to Fontana Herald News.

Non-Profit to Host 15th Fair to Help Make the 'American Dream' a Reality

For those in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who have been wanting to become homeowners but have hesitated due to low income or bad credit, a non-profit in Los Angeles hop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resources that would enable them to buy homes. That information will be avail-

able at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s 15th annual homeownership fair, which will be taking place on September 10 from 9 AM to 1 PM at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Hyepin Im, the president and CEO of KCCD, said that many in

the Korean community may have hopes to buy a home some day, but consider it an impossibility due to low income or bad credit, and that a lack of fluency in English often prevents them from access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elp them realize those hopes to own a home.

The homeownership fair will feature seminars on the benefits of homeownership, how to fix or improve credit score, the resources available from the government and banks, and the various special loan products (such as no down-payment products) available, among other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One Quarter of American Teens Read the Bible at Least Once Per Week, Barna Study Says

A new research on teens commissioned by the American Bible Society and carried out by Barna revealed that about 70 percent of teenagers in America own a personal Bible.

One of the remarkable findings of the survey was that a quarter of teens read the Bible at least once each week. Of them, 3 percent read it every day, 11 percent read the Bible several times or more than 4 times per week, and another 11 percent read it once a week. Some 37 percent say they never read the Bible.

"American teens sometimes get a bad rap as being uninterested or even anti-faith," said Arthur Satterwhite, senior manager at American Bible Society. "But today's Teen State of the Bible report shows that a majority of America's teens have respect for and interest in the Bible."

The proportion of teenagers who

very rarely read the Bible was smaller in comparison. About 9 percent of teenagers said they read it once a month, while 10 percent managed to read it only three or four times a year.

As many as 36 percent of teens spent 15-29 minutes reading the Bible, while 22 percent spend 30 to 44 minutes on it. About 7 percent of the teens read the Bible for one hour or more. About 31 percent read the text for less than 15 minutes.

A majority of Bible readers (54 percent) said that they read Scripture to bring them closer to God. Some 12 percent said they read the Bible because they think they are supposed to, 8 percent said they read it for comfort, and another 6 percent said they read the Bible because they need direction for their lives. About 11 percent said they read it for other reasons.

A majority (70 percent) of teens read

the Bible in print version, or while attending a small group Bible study (50 percent). About 46 percent use their cell phones to search for Bible verses, 35 percent searched for the scripture online, and some 33 percent used a Bible app on smartphones.

About 16 percent of teens listened to audio Bibles, and an equal proportion listen to Bible sermon podcasts.

About 96 percent of practicing Protestants and 67 percent of practicing Catholics said that the Bible was a source of hope and guidance for them. Only 44 percent of non-practicing Christians agreed with that. A significant proportion (35 percent) of teens said that the Bible helps them to live a meaningful lif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013 teens between the ages of 13 to 17 years old across the US, between May 6 and 23.

Five States Sue Government for Mandating Doctors to Perform Sex Change Operations

Five states and two organizations comprising of health care providers have sued the federal Health and Human Services over Obamacare regulations which mandate doctors to perform sex reassignment surgeries and procedures, even against their medical judgment and deeply-held religious beliefs.

Under the HHS regulations, physicians will be compelled to provide hormone therapy or sex change surgery despite their moral and conscientious obligations.

The HHS rules apply to health care providers who accept federal dollars

from Medicaid and Medicare, and the providers can be taken to court for referring the sex change patients to other doctors.

Texas Attorney General Ken Paxton, who filed the lawsuit on behalf of the plaintiffs, said that the law is in violation of "medical judgment and conscience rights of doctor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across the country."

The lawsuit represents over 17,000 physicians affiliated with the Franciscan Alliance Inc., Specialty Physicians of Illinois LLC, and 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s, and from five states including Kansas, Kentucky,

Nebraska, Texas, and Wisconsin.

"Under the new regulation, a doctor must perform these procedures even when they are contrary to the doctor's medical judgment and could result in significant, long-term medical harm," the lawsuit states. "Thus, the regulation represents a radical invas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into a doctor's medical judgment."

The lawsuit says that many of the crucial medical decisions such as hysterectomy on transgender patients are called "medical necessity" by the HHS, thus disregarding individualized medical advice.

Over 1 Million Children Displaced, Thousands Malnourished Due to Boko Haram

The Boko Haram insurgency in Africa has left 1.4 million children displaced and another one million rendered vulnerable in remote parts of the region still occupied by Boko Haram, according to a recent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report.

The UN agency has called for funds to reach the affected children in Nigeria, Cameroon, Chad and Niger, which are marred by violence.

UNICEF said that about 50,000 people in the state of Borno alone may die if they are not given the needed support.

About 2.6 million people are currently displaced in the Lake Chad region, and about 2.2 million people are still reeling under the control of Boko Haram. About half of the victims are children and are in need of immediate aid.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acute malnutrition have increased from 175,000 at the beginning of 2016 to 475,000 at this time of the year. In northeast Nigeria, about 20,000 children are estimated to hav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The UN reported that about 38 children were used as suicide bombers in the Lake Chad basin this year.

About 80 percent of the people are



An anti-Boko Haram protest took place in London in January of 2015. (Photo: Garry Knight/CC)

staying with extended families and neighbors, which has put an additional strain on poor households.

The report cites a case history of three young girls and their brother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when Boko Haram attacked their village. The three young girls were taken in by a man named (only first name given) Francois in Dzawandai village. They were eventually found by their mother who searched for her children in surrounding villages. She also found her son a year later when shopping for food in another village. The boy also

was taken care of by a foster family.

"It was natural for me to offer them shelter," said Francois. "If one day they decide to leave, it will be their choice, but if they decide to stay, my home will be theirs after I die. They are my family now."

The UN agency aims to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to half a million children affected by the conflict, and send them to schools. It also aims to reach 4.3 million people with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and to make drinking water accessible to 1.4 million people, among its several other goals.

Foreign Christians Among the First to Face Consequences of Russia's Yarovaya Laws

Russia's new 'Yarovaya' anti-conversion laws have affected two Christians -- both of whom are the first victims to have faced punishment for evangelizing, and are also foreign citizens. One of the victims is a US Baptist preacher Donald Ossewaarde, and the other is a Ghanaian Protestant Ebenezer Tuah.

Ossewaarde was detained in the city of Oryol, about 223 miles from Moscow, and was fined 40,000 roubles for hosting services at his home, and handing out tracts inviting people to study the scriptures. He carried out missionary activity without submitting written notice to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judge who prosecuted him. Ossewaarde does not represent any religious association.

His lawyers gave a brief to the media, which stated in part:

"The court refused to allow time for Donald's lawyers to come from Moscow for the initial hearing, and then provided a lawyer to him. In a 'confidential conversation' after the hearing, this court appointed lawyer advised

him to accept the verdict and pay the fine without appeal. Then he said that it would be better for the American to leave the city, because anything might happen to him and his family."

Ossewaarde's family has left for the US, but Ossewaarde has stayed back to appeal his case.

Tuah, who leads the Christ Embassy Church, was arrested at the sanatorium where he was baptizing individuals in Moscow's Tver district.

He also posted information about his beliefs on the internet for proselytizing, and was fined 50,000 roubles. He had no registered documentation for the group.

In the court proceedings, a "specialist" said that the videos of his group events taken from the sanatorium's cameras show that his activities corresponded to "the definition of missionary activity, since the very fact of baptism is evidence that that preach-

ing and missionary activity are being carried out in front of people who are not part of this religious group."

The judge, then, found him guilty of "activity aimed at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his beliefs among non-participants (members, followers) of a religious association, in order to involve these persons in the religious association." Tuah is likely to appeal the sentence.

Aleksandr Yakimov, leader of a Pentecostal community in the town of Mari-Turek, has also been charged with similar offenses.

The detentions were carried out after a legislation banning evangelization outside of authorized religious establishments was passed by the government in July.

Religious and human rights activists say that these are attempts by the state to clamp down on religious freedom.

Christianity Daily will not be issued next week.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n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Limited Technology
Packag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